

# 나만의 문제지 - 2학기 수행평가

## 문제은행

1

### [ 정답 ]

1	①	2	④	3	④	4	②	5	②
6	⑤	7	②	8	②	9	⑤	10	③
11	⑤	12	③	13	②	14	④	15	④
16	③	18	②	19	④	20	①	22	①
23	②	24	②	25	③	26	②	27	②
28	⑤	29	②	30	⑤	31	④	32	④
33	④	34	④	35	②	36	④	37	②
38	②	39	②	40	④	41	②	42	②
43	②	44	②	45	④	46	④	47	①
48	③	49	④	50	④	51	④	52	④
53	③	54	⑤	55	③	56	②	57	②
58	②	59	④	60	③	61	③	62	③
63	③	64	③	65	①	66	⑤	67	④
68	④	69	④	70	⑤	71	③	72	④
73	③	74	③	75	④	76	③	77	⑤
78	②	79	④	80	④	81	②	82	⑤
83	①	84	③	85	②	86	④	87	②
88	④	89	②	90	③	91	③	92	②
93	⑤	94	⑤	95	③	96	④	97	⑤
98	④	99	①	100	④	101	⑤	102	④
103	②	104	①	105	②	106	④	107	⑤
108	①	109	④	110	③	111	⑤	112	④
113	②	114	②	115	④	116	⑤	117	④
118	③	119	③	120	④	121	④	122	②
123	④	124	④	125	②	126	③	127	⑤
128	③	129	⑤	130	②	131	③	132	④
133	④	134	③	135	④	136	⑤	137	⑤
138	②	139	③	140	③	141	④	142	②
143	③	144	⑤	145	③	146	②	147	④
148	③	149	②	150	③	151	①	152	②
153	②	154	②	155	③	156	⑤	157	③
158	①	159	①	160	⑤	161	⑤	162	③

없다. 따라서 ㄷ과 ㄴ을 토대로 ②와 같은 내용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피하기]

- ① ㄱ은 '마당이 좁다'라는 서술절이 안겨 있어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 문장이며, ㄴ은 '키가 크시다'라는 서술절이 안겨 있어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 문장이다.
- ③ ㄴ은 주어가 '우리 선생님은'이기 때문에 '크다'에 '-시-'가 붙는다.
- ④ ㄹ의 서술어는 '슬프다'이다. 이처럼 느낌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서술어로 사용되면 문장의 주어가 말하는 이 자신인 까닭에 굳이 주어를 밝혀 말하지 않아도 된다.
- ⑤ ㄹ의 '자기'는 주어인 '철수'를 가리킨다.

### 5. 해설

#### 문장의 구조 파악과 적용의 적절성 판단

㉠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의 예이다. ㉡의 문장 역시,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문장이 '그는 사람이다.'라는 문장 속에 안겨서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서술절(앞발이 매우 짧다)을 안은 문장이다.
- ③ 두 문장이 대등적 연결 어미 '-고'에 의해서 이어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 ④ 명사절(그가 다녀갔음)을 안은 문장이다.
- ⑤ 부사절(그림이 아름답게)을 안은 문장이다.

### 6. 해설

#### [어법의 이해와 활용]

#### [풀이]

ㄴ과 ㄷ은 행위가 바뀌었지만 주어가 동일한 경우이고, ㄹ은 '운동하다'라는 행위가 동일하지만 그 주체가 달라져 주어가 바뀐 경우이다. 따라서 '-다가'의 앞뒤 문장은, '행위'가 바뀐 경우에는 주어가 같아야 하며 '주체'가 바뀐 경우에는 당연히 주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출다가 덩다가', '운동하다가'에서 '-다가'가 용언(형용사, 동사)의 어간에 붙는 연결 어미임을 알 수 있다.

### 7. 해설

#### <풀이>

㉡의 경우 종결 어미 '-다'가 명사형 어미 '-ㅁ'으로 형태가 바뀌기는 했지만, 문장 성분이 생략된 것은 없다. 또한, ㉢에서도 목적어가 생략된 것은 아니고, ㉣에서도 변형은 있지만 서술어가 생략되지는 않았다. 문두와<보기>를 통해서 이 문제는 국어의 문장 구조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안긴 문장'은 원래 하나의 문장이었던 것이 다른 문장 속에 절의 형태로 안긴

17	2
21	겹문장

### 1. 해설

#### 서술어의 자릿수 이해

- ①은 주어인 '물이'와 보어인 '얼음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므로 '㉠'로 판단해야 한다.
- 오답 피하기 ②는 '개나리가'라는 주어만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 ③은 주어인 '우정은'과 부사어인 '보석과'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이다. 만

## 문제은행

것이고, 이러한 문장을 안고 있는 문장이 '안은 문장'이다. 또한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문장이 연결어미로 이어진 문장을 말한다. 그러므로, ㉔는 '홍연이가 착한 아이임(←홍연이가 착한 아이이다.)'을 명사절로 안고 있는 안은 문장이고, ㉕는 '높이 나는 새는 멀리 볼 수 있다.'라는 문장과 '빨리 나는 새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문장이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다. ㉖의 경우는 '아름다운'이 '그녀'를 수식하는지 아니면 '정원'을 수식하는지에 따라 의미 해석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하여간 '아름다운(←그녀가 아름답다/정원이 아름답다)'이라는 관형절을 안고 있는 안은 문장이다.

### 8. 해설

#### 풀이

'손톱깎이'는 '손톱+깎다'의 합성법에 의해 만들어진 새말이다. 또한, '손톱깎이'는 '손톱깎'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파생된 새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합성법과 파생법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말을 찾아야 한다. '구석차기'는 '구석+차+기'로 이루어졌는데, '구석+차다'는 합성법에 의한 것이고, '구석차+기'는 파생법에 의한 것이다.

#### 오답 피하기

① 어렵풋(용언)+이(접미사) → 파생어, ③ 중(접두사)+병아리(명사) → 파생어, ④ 어린(용언)+아이(명사) → 합성어, ⑤ 모눈(명사)+종이(명사) → 합성어

### 9. 해설

#### 종결 표현의 이해

우리말에서 종결 표현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말의 종결 표현은 종결 어미에 따라 평서문(다), 의문문(느냐,냐), 명령문(어라/아라), 청유문(자), 감탄문(구나)으로 나뉜다.<보기>의 '3가'에 쓰인 종결 어미 '(으)라'는 말을 듣는 이로 하여금 조심하라고 경계 명령을 전달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명령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3나'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문장이므로 청유형 문장이다. 그런데 ㉕의 설명 중, '문장의 주어는 듣는 이가 되고, 서술어로는 동사만 올 수 있다.'라는 내용은 명령문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유문은 주어에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포함된다. 그러므로 ㉕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피하기

① '1가'는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이다.  
 ② '1나'는 물음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강한 긍정을 내포하는 수사 의문문(또는 반어 의문문)이다.  
 ③ '2가'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명령문이다.  
 ④ '2나'에 쓰인 종결 어미 '어라'는 본래 명령형 어미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과 함께 올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명령의 의미가 아니라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10. 해설

#### 국어의 복수 표현에 대한 탐구 결과의 적절성 평가

㉔의 첫 번째 예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복수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음을 나타내며, 두 번째 예는 '사람'이 복수 접미사와 결합해 복수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세 번째 예는 문맥적으로 특정한 상황이 전제되지 않고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낼 때는 '사람'이 복수 접미사와 결합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더욱이 두 번째 예인 '사람들'은 첫 번째 예처럼 '사람'이라고 해도 되기 때문에 '사람'이 문맥에 따라서 복수 접미사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㉔를 보면, 수사인 '셋', 단위 명사인 '명' 뒤에 복수 접미사 '들'이 결합하지 못하고 있다.

② ㉔는 '너'에 '-희'만 붙여 '너희'만으로도 복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만, '너희'에 '-들'이 붙은 '너희들'이라고 해도 복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④ '물'이나 '시간'은 본질적으로 나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복수 접미사가 결합하지 못한다.

⑤ '-들'은 '공부'라는 명사 뒤에 붙거나, '여기', '어서'와 같은 부사 뒤에 붙어 서술어의 주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 11. 해설

#### 인용절의 용법 이해

ㄱ처럼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시간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내일'이 '오늘'로 바뀐 것은 발화시가 '지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㉔). 또 ㄴ처럼 인용문에 나타나는 대명사가 조정되기도 한다. 직접 인용문에서는 인용절의 주어와 전체 문장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지만, 간접 인용문에서는 일치하기 때문이다(㉑). ㄷ처럼 높임의 단계가 조정되기도 한다. 직접 인용절에서의 '하십시오체'가 간접 인용절에서는 '해라체'로 바뀌었다(㉓). ㄹ처럼 직접 인용문에서 요청을 의미하는 '주다'는 간접 인용문에서는 '달라'로 바뀐다(㉒). 그렇지만 직접 인용문이 간접 인용문으로 바뀐다고 인용절 이외의 다른 절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 12. 해설

#### 간접적인 발화의 이해와 적용

#### <풀이>

㉓는 높임말로 정중하게 표현하고는 있지만, 경찰서의 위치를 알려 달라는 요구를 명령문의 형태로 직접 전달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발화'이다.

#### <오답피하기>

①은 의문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문을 닫아 달라'는 요구를 표현한 것이고, ②는 '자리를 옮겨 달라'는 요구를, ④는 '조용히 하라'는 요구를, ⑤는 '39쪽에 있는 문제를 풀라'는 요구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 13. 해설

#### 능동문과 피동문의 특성 추리

피동문의 부사어에는 조사 '~에'나 '~에게'가 사용된다. 이때 조사의 선택은 조사 앞의 단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서술어가

## 문제은행

선택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 앞의 단어가 사물인 경우에는 '~에'가, 사람인 경우에는 '~에게'가 선택된다.

### 오답 피하기

- ① '잡다' / '잡히다', '흔들다' / '흔들리다' 등
- ③ '연이 나무에 걸렸다.'라는 피동문은 그와 짝이 되는 능동문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를 능동문으로 바꾸면 '나무가 연을 걸었다.'의 형태가 되는데, 이런 문장은 가능하지 않다.
- ④ '이기가다'의 피동은 '이김을 당하다.'의 의미를 가져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피동사가 없으므로 반대의 의미를 지닌 '지다'를 사용하여 피동의 의미를 드러낸다.
- ⑤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바람이'가 '바람에게'로, '나뭇가지들'이 '나뭇가지가'로 바뀐다.

## 14. 해설

### [시제의 이해와 적용]

상대적 시제는 관형사형에서 주로 나타난다. '나영이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 태호를 열거니 쳐다보았다.'에서 '지나가는'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면 과거 시제가 된다. 주문장의 시제가 발화 이전이므로 '지나가는'도 과거가 된다. 그러나 '지나가는'의 시제를 '쳐다보았다'와 관련시키면 현재가 된다. '지나가는'의 사건시와 '쳐다보았다'의 사건시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곧 과거에 있어서의 현재가 된다. 이렇게 본다면 ㉠에서 '마실'은 상대적 시제인 과거에 있어서의 미래가 된다. 또 ㉡의 '화사한'은 과거 속의 현재에 해당한다.

### [오답피하기]

- ㉠ 문장 전체의 절대적 시제인 현재만 나타나 있다.
- ㉡ '안개'로 인해'에는 시간 표현이 들어 있지 않다. 또 '걸리고 말았다'는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의 관계이므로 두 가지 시제로 간주하지 않는다.

## 15. 해설

### 지시 대명사의 기능 이해 및 적용

지시하는 대상이 이야기 장면에서 실재할 때, 물리적으로 말하는 이에 가까이 있는 대상에는 '이', 듣는 이에 가까이 있는 대상에는 '그', 말하는 이와 듣는 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에는 '저'가 사용된다.

### 오답 피하기

- ① 대화의 장소에는 '이 책, 그 책, 저 책' 세 권의 책이 있다.
- ② '이, 그, 저'는 친숙한 정도에 따라 쓰임이 결정되지 않는다.
- ⑤ 병찬의 '이 책'과 나연의 '그 책', 병찬의 '그 책'과 나연의 '이 책', 나연의 '저 책'과 병찬의 '저 책'은 지시 대상이 같다.

## 16. 해설

### 감탄문의 이해

'아이고, 추워라!'는 '춥다'라는 형용사에 '-어라'가 붙어 이루어진 문장으로

,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반면에 '네가 벌써 대학생이 되어라!'라는 문장은 비문이다. 여기서 '되어라'는 동사인 '되다'에 '-어라'가 붙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라'는 동사에 붙어 감탄문으로 쓰일 수 없다.

### 오답 피하기

- ① '밝구나 / 밝구먼 / 밝구료'는 상대 높임법에 따라 각각 '해라체 / 하계체 / 하오체'에 해당하는 감탄문이다.
- ②, ④ '아이고 추워라'와 같이 '-어라'는 청자와는 무관한 화자의 독백에 쓰인다. '철수가 추워라'와 같이 주어가 화자 이외의 사람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⑤ 형용사인 '밝다'에 감탄형 어미 '-구나'가 붙을 때는 '밝다'의 어간 '밝-'에 직접 '-구나'를 붙여 '밝구나'가 된다. 그러나 동사에 붙일 때는 현재시제 선언어말어미 '-는-' 뒤에 붙는다. 가령 '되다'의 경우 어간 '되-'에 현재시제 선언어말어미 '-는-'을 붙이고 '-구나'를 붙여 '되는구나'가 된다.

## 17. 해설

### 어법에 맞는 표현 구분하기

②는 수식하는 범위의 문제가 아니다. 즉, '좋아하다'를 수식하는 말을 잘못 사용하여서 의미가 모호해진 것은 아니다. 좋아하는 주체와 객체의 구조적 모호성, 즉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강조하여 말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누구나'를 강조할 경우 다른 사람들이 박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이 되고 '다'를 강조하여 말하면 박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을 모두 좋아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이 문장의 모호성은 수식 범위가 아닌 구조적인 모호성 때문이다.

## 18. 해설

### [서술어 특성의 이해와 사용]

②의 '달라'(기본형 '다르다')는 주어(영미의 취향은)와 하나의 부사어(나와 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아주 탄탄으로'는 그 말이 없어도 문장이 성립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성분이라 할 수 없다.

### [오답피하기]

- ① '의논하다'는 주어(나는), 목적어(이 문제를), 부사어(선생님과)에 해당하는 성분들이 꼭 필요하다.
- ③ '여기다'는 주어(아버지는), 목적어(오빠를), 부사어(대들보로)에 해당하는 성분들이 꼭 필요하다.
- ④ '삼다'는 주어(그 양반은), 목적어(친구의 딸을), 부사어(자기 며느리로)에 해당하는 성분들이 꼭 필요하다.
- ⑤ '주다'는 주어(누나가), 부사어(우리에게), 목적어(자기 모습이 담긴 사진을)에 해당하는 성분들이 꼭 필요하다.

## 19. 해설

### 높임 표현의 이해

화자가 주체보다 높임의 대상인 문장은 '동생이 나보고 놀자고 보챘다.' 하 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모두 화자가 주체보다 낮다. 그리고, 화자가 청자보

## 문제은행

다 낮춤의 대상인 문장은 '-버니다'로 증결된 두 문장이다. 나머지는 화자가 청자에 비해 높임의 대상이거나 동등한 관계이다. 따라서 잘못 표시한 곳은 모두 4개이다.

### 20. 해설

종속적 연결 어미의 쓰임 이해

①의 용례에서 사용된 '-으면'은 현실과 다른 사실을 가정하여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현실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거나 그렇지 않음을 해석해하는 뜻을 나타낸다.

### 21. 해설

[정답풀이]

'철수는 연극을 좋아한다'와 '영희는 영화를 좋아한다'는 대등적 연결 어미 '-고'로 이어진 문장이다. 서술어(좋아한다)가 중복되어 하나만 사용되었지만 주어는 분명히 두 개다. 따라서 이 문장은 겹문장이다.

### 22. 해설

품사의 통용과 그 적용

<풀이>

<보기>의 과제는,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동일한 형태를 취하면서 다른 쓰임을 보이는 단어를 찾아보라는 것이다. 그런데 ①의 '바로'는 '곳다'와 '떠났다'라는 용언을 꾸며 주므로 모두 부사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 ② 앞 문장의 '아니'는 감탄사이고, 뒷문장의 '아니'는 '은다더라'를 수식하므로 부사에 해당한다.
- ③ 앞 문장의 '잘못'은 '옳지 못하게 한 일'이란 의미의 명사이고, 뒷문장의 '잘못'은 부사이다.
- ④ 앞 문장의 '대로'는 의존 명사, 뒷문장의 '대로'는 조사이다.
- ⑤ 앞 문장의 '다섯'은 수사이고, 뒷문장의 '다섯'은 체언을 꾸며 주므로 관형사이다.

### 23. 해설

어법의 이해와 적용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의 사동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사동사가 사용된 문장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그 예가 ㉠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새 옷을 입히었다.'이다. 이 문장은 '어머니가 직접 옷을 입혀 주었다.'라는 의미와 '어머니가 아이가 옷을 입도록 만들었다.'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의 '그는 박자를 늦추어 연주했다.'는 '그가 연주곡의 박자를 느리게 했다.'라는 의미만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늦다'와 '늦다'는 형용사인데, 사동 접사를 붙이니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와 같은 역할을 문장에서 수행하고 있다. ③ ㉠의 '길이'와 ㉡의 '승객이'는 주어인데, 사동사를 취한 문장에서는 각각 '길을'과 '승객을'로 변해 목적어가 되었다. ④ '태우다'는 주동사 '타다'의 어간 '타-'에 사동 접사 '-이'와 '-우'가 함께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⑤ '소를 먹이다'에서 '먹이다'는 '가축 따위를 기르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먹다'에 대응되는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 24. 해설

조사의 특성과 쓰임 이해

<보기>는 조사 '와'의 쓰임을 정리하여 ㄱ~ㄴ과 같은 쓰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a~c에 적용해야 하는데 a는 '사과'와 '배'를 모두 좋아한다는 의미이므로 ㄱ처럼 '앞뒤 명사를 모두 가리킬 때' 쓰인 경우이다. b에서는 '아이'와 싸우고 있는 중임을 나타내므로 '함께 어떠한 일을 하고 있거나 어떠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ㄴ의 예이다. c는 '동생'과 '언니'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비교의 대상이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ㄴ의 예이다.

### 25. 해설

[정답 공략]

1. 자료에 제시된 어법 지식을 이해한다.

<보기>를 통해,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는 방법은 주어와 목적어를 맞바꾼 다음에 서술어를 피동사로 바꾸어 주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출제 의도를 파악한다.

능동 표현을 모두 다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동 표현으로 바꾸었을 때 의미상 자연스럽지 못한 것을 찾아야 한다.

3. 어법 지식을 답지에 적용한다.

③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문이 내 동생에게 재빨리 닫혔다.'로 되는데, 이런 표현은 어색하다. 서술어를 꾸미고 있는 부사어 '재빨리' 때문에 피동 표현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다. '재빨리'는 '내 동생'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지 문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①은 '닭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 ②는 '새벽에 교회 종소리가 들렸다.', ④는 '진우가 아이들에게 의해 회장으로 뽑혔다.', ⑤는 '지나가던 행인이 사나운 개에게 물렸다.'로 각각 바꿀 수 있다.

### 26. 해설

서술어의 자릿수 이해

국어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란 그 성분을 생각하면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될 수 없게 하는 성분을 가리킨다. 'ㄴ, 학생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주어인 '학생들이'와 목적어인 '점심을' 그리고 서술어인 '먹는다'이다. '식당에서'라는 부사어는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아니다. 이 성분은 문장의 의미를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할 뿐 문장의 문법적 성립 여부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ㄴ에서 꼭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은 네 개가 아니라 세 개라고 할 수 있다.

## 문제은행

### 오답피하기

- ① ㄱ은 '아이가', '잔다' 등 주어, 서술어만이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다.
- ③ ㄷ에서 '예쁘게'를 생략하면 문장의 의미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부사어도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 ④ '작은'은 관형어이지만 이 문장에서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다.
- ⑤ ㄹ에서 서술어 '개통되다'에 해당하는 주어가 없으면 문장 성립이 안 되므로 이에 대한 주어를 보충해야 한다.

### 27. 해설

#### 어법의 이해 및 적용

#### [정답풀이]

의존명사는 '-ㄴ(은/는)', '-ㄹ(을/를)' 등의 여러 가지 관형사형과 결합이 자유로우나 주어성 의존명사와 서술성 의존명사는 극히 제약되어 있다. 주어성 의존명사는 주격 조사와 통합되어 주어로 주로 쓰이는 의존명사로 '지', '수' 등을 일컬으며, 서술성 의존명사는 서술격 조사와 통합되어 서술어로 주로 쓰이는 의존명사로 '뿐'이 대표적이다. 이들 의존명사는 특정 관형사형과만 결합한다. 그러나 ㄹ의 '대로'는 주어성 의존명사나 서술성 의존명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형사형과의 결합이 자유롭다. '대로'는 '지친 대로', '지칠 대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관형사형과 결합하는 데에 ㄱ, ㄴ의 '지'나 '수'처럼 제약이 있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ㄴ의 '데'는 '곳'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ㄹ의 '것'은 '물건'으로 대체될 수 있다.
- ③ '만큼'이나 '대로'는 보조사 '은/는' 또는 '도'와 결합하기도 하지만<보기>의 예와 같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은 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 ④ ㄱ의 '지'는 '가'하고만 결합된다. 그리고 ㄷ의 '뿐'은 '이다'하고 결합되어 서술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ㄴ의 '통'도 '에'하고만 결합한다.
- ⑤ 의존명사는 자립명사와 달리 관형어가 선행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 28. 해설

#### 어법의 이해

3의 '가다(갔다)'와 '싶다'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이다. 그런데 '가다'는 본용언을 보조하는 용언이 아니라 '들다'와 나란히 쓰인 본용언이고, '싶다'는 '(병이) 낫다'를 보조하는 용언으로 쓰였음에 유의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1.1에서 '나는 울었다'와 같이 보조 용언 '싶었다'를 제외해도 문장은 성립하지만, 보조 용언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②) '싶다'는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2의 경우는 2.1과 2.2처럼 하나를 생략해도 두 문장이 각각 성립하므로 2는 두 개의 본용언을 연결형 어미 '-아'를 이용하여 연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④ 2.2의 경우 '먹다'는 타동사로서 '사과를 먹다'처럼 '꺾다' 없이도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자립성이 강하므로 보조 용언이 아니라 본용언으로 볼 수 있다.

### 29. 해설

#### 문장 구조의 이해 및 적용

㉠은 얼핏 보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이루어진 것 같으나 반복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출문장이 아니다. 즉, '그는 이 고장에서 태어났고, 그는 평생 동안 이 고장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라는 문장에서 '그는'이 반복되었으므로 뒤에 오는 문장의 주어를 생략한 결문장이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 30. 해설

#### [종결 표현의 이해]

우리말에서 종결 표현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말의 종결 표현은 종결 어미에 따라 평서문(다), 의문문(느냐,냐), 명령문(어라/아라), 청유문(자), 감탄문(구나)으로 나뉜다.<보기>의 '3가'에 쓰인 종결 어미 '(으)라'는 말을 듣는 이로 하여금 조심하라고 경계 명령을 전달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명령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3나'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문장이므로 청유형 문장이다. 그런데 ⑤의 설명 중, '문장의 주어는 항상 듣는 이가 되고, 서술어는 동사만 올 수 있다.'라는 내용은 명령문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유문은 주어에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포함된다. 그러므로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피하기]

- ① '1가'는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이다.
- ② '1나'는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의 효과를 나타내는 수사 의문문(또는 반어 의문문)이다.
- ③ '2가'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명령문이다.
- ④ '2나'에 쓰인 종결 어미 '어라'는 본래 명령형 어미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과 함께 올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명령의 의미가 아니라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31. 해설

#### 어법의 이해와 적용

서술어의 자릿수란 필수적인 문장 성분의 개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했다. 예시 문장에서 '주다'는 주어인 '할아버지께서'와 목적어인 '세뱃돈을'만이 아니라, 대상인 '우리들에게'의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④에서 '보내다'라는 서술어 역시 주어인 '영희는'과 목적어 '엽서를'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냈는지, 즉 대상인 '철수에게'라는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세 자리 서술어이다.

#### 오답피하기

- ① '되다'는 주어인 '물이'와 무엇이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얼음이'라는 보어가 반드시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이다. 즉, 관형어인 '투명한'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② '피었다'는 주어인 '꽃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③ '갈다'는 주어인 '우정은'과 부사어인 '보석과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⑤ '읽는다'는 주어인 '학생들이'와 목적어인 '책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32. 해설

#### 어휘 · 어법 (조사의 쓰임 이해)

정답해설 : 조사 '는'은 '대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㉔에서 '할아버지에게'에 '는'을 써야 하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말썽꾸러기 돼지 한 마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할아버지'는 '말썽꾸러기 돼지 한 마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돼지를 싫어한다'는 내용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는'을 써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㉔

[오답피하기] ㉑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주격 조사 '가'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㉒ 앞 문장에서 할아버지를 소개했으므로 '는'을 써야 자연스럽다. '가'를 사용하면 앞 문장과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게 된다. ㉓ 할아버지가 돼지를 싫어한다는 사실은 할아버지가 개와 고양이를 귀여워한다는 사실과 대조된다. ㉕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애교가 많지도 않다는 점에서 '말썽꾸러기 돼지'는 다른 동물들과 대조된다.

### 33. 해설

#### 풀이

'민머느리'에 쓰인 '민'은 '미리 치른' 또는 '미리 데려온'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민'이 '그것이 없음' 또는 '그것이 없는 것'의 의미로 쓰인 단어의 예로는 '민우늬', '민소매' 등이 있다.

#### 오답 피하기

㉕ '겉잡다'는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라는 의미의 단어이므로, 여기에 쓰인 '겉'은 '겉으로만 보아 대강 한다'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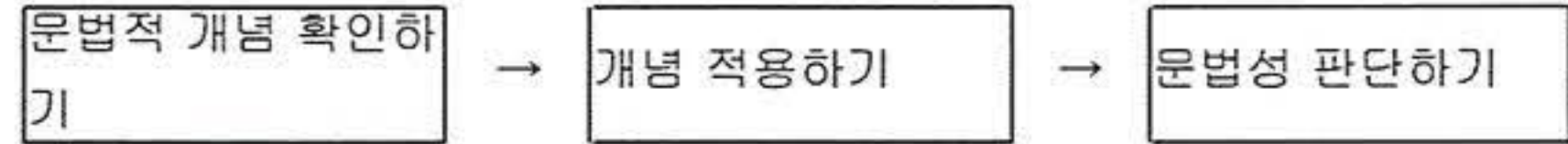
### 34. 해설

#### [서술어의 자릿수 이해와 적용]

모든 문장에서 주어는 꼭 필요로 하는 성분이다. (가)의 '가다'는 '나는 간다.'와 같이 주어 하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그리고 (나)의 '보다'와 (다)의 '드리다'는 '무엇을' 보고, 드리는지가 문장에 나와야 하므로 목적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편 (다)의 '드리다'는 '누구에게' 준 것인지가 나와야 하므로 부사어가 꼭 필요하다. 따라서 (나)의 '보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다)의 '드리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꼭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한편 (라)의 '되다'는 '얼음이'와 같은 보어를 꼭 필요로 하는 서술어이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 35. 해설

#### [해결전략]



○ ㄱ, ㄴ : 필수적인 성분의 개념  
 ○ ㄷ : 주어, 서술어 외에 부사어도 필수적인 성분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  
 ○ ㄹ : 관형어 생략 가능성 여부  
 ○ ㅁ : 필수 성분의 누락 여부

㉓ 일반적으로 부사어는 필수 성분이 아닐 때가 많지만, ㄷ과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성분이 될 수 있음.

㉔ ㄴ에서 필수적 문장 성분을 찾으면 주어인 '학생들이', 목적어인 '점심을', 서술어인 '먹는다'임. 그러나 '식당에서'라는 부사어는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아님.

#### [오답이 원인 분석]

오답의 원인은 1차적으로 문장의 필수 성분이나 생략해도 되는 수의적 성분에 관한 문법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2차적으로는 용례에 적용하여 이해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문항에서 필요한 개념은 필수적 문장 성분이 누락되면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주어-서술어, 주어-목적어-서술어, 주어-보어-서술어 등과 같이 문장 형식에 따라 필수적인 성분은 달라진다.

#### [매력적인 오답이 근거 찾기]

㉓ 부사어는 필수 성분이 아닐 때가 대부분이지만, ㄷ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필수적인 성분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한다. (예) '나는 어머니께 선물을 드렸다.'에서 '어머니께'는 부사어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다.)  
 ㉕ ㅁ도 오답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는 '모른다'의 주어이지만, '개통되다'의 주어는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개통되다'의 주어는 '도로가, 지하철' 정도가 될 것이다.

### 36. 해설

#### 문장 구조의 이해

ㄴ의 '우리가 돌아왔다.'라는 안긴 문장은 동격 관형절로 그 자체가 뒤의 '사실'이라는 체언과 동일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생략되는 성분이 없다. 이와는 달리 관형절에는 관형절 안의 성분과 이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일치해서, 관형절 안의 성분이 탈락한 형태로 나타나는 관계 관형절도 있다.

오답 피하기 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다른 문장 속에 안긴 문장이다.

- ㉒ ㄱ의 밑줄 친 부분은 부사어, ㄴ의 밑줄 친 부분은 관형어, ㄷ의 밑줄 친 부분은 목적어의 구실을 하고 있다.
- ㉓ ㄱ의 밑줄 친 부분은 상위문의 주어 '그는'과 동일하여 하위문의 주어가 생략된 것이다.
- ㉕ ㄷ의 밑줄 친 부분은 명사절로,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서 이루어졌다.

37. 해설

풀이

'갯잎'은 1(3)에 의해 사이시옷이 붙은 경우이지만, '아랫니'는 '아래(고유어) + ㅅ + 니(고유어)'의 형태로 합성된 낱말이므로 1(2)에 의해 사이시옷이 붙은 경우이다.

오답 피하기

① 사이시옷은 낱말과 낱말이 합해질 때 된소리가 나거나 소리가 덧나는 상황에서 붙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머릿방'과 '햇수'는 '고유어와 한자어(房, 數)'가 합성되는 과정에서 각각 '[머리방/머릿방], [해수/콧수]'로 발음되어 사이시옷이 붙은 경우이다. ④ '수돗물'과 '양치물'은 한자어와 고유어가 합성되는 과정에서 각각 '[수든물], [양친물]'로 발음되어 사이시옷이 붙은 경우이다. ⑤ '나무꾼'과 '위층'은 사이시옷 규정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붙일 수 없는 경우이다.

38. 해설

동작상의 용법 이해

'영이는 학교를 걸어서 간다.'에서 '간다'의 '가다'는 보조 용언이 아니라 본 용언이다. 따라서 동작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보기>에 따르면 동작상은 보조 용언이나 어미를 통해 나타난다.

오답 피하기 ① '-고 있다'의 형태로 보조 용언 '있다'가 쓰이면 진행상의 의미를 갖는다. 반면 '-어 있다'의 형태로 보조 용언 '있다'가 쓰이면 완료상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ㄴ은 바람이 부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ㄹ은 깨는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

④ 보조 용언 '나다'가 동사 뒤에서 '-고 나다'의 구성으로 쓰이면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끝났음을 나타낸다.

⑤ 보조 용언 '버리다'는 동사 뒤에서 '-어 버리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낸다.

39. 해설

사동 표현에 대한 이해

ㄴ의 '빨리'는 선생님의 행위를 꾸미고 있다. 선생님이 철수에게 책을 읽도록 시킨 것을 빨리 하셨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것이 사동문에서 부사어의 위치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빨리 책을 읽게 하셨다.'와 같이 '빨리'의 위치를 바꿔도 무방하기 때문에 수식어의 위치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ㄷ, ㄹ은 자동사와 타동사에 사동 접사를 결합시켜 사동사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이와 달리 ㄴ은 '높다'라는 형용사에 사동 접사 '이'를 결합시켜 사동 표현을 만들었다.

③ '태우다'는 '타다'에 사동 접사 '이'와 '우'가 결합해 만들어진 말이다.

④ ㄹ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는 의미와 아이로 하여금 옷을 입게 만들었다는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⑤ ㄹ의 '먹이다'는 '먹다'에 사동 접사 '이'가 결합해 만들어진 말이지만, 단순히 '먹게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먹게 하다.'라는 의미

가 확장되어 '가축을 기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40. 해설

능동 및 피동 표현의 이해

능동 표현을 모두 다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잡초가 부지런히 철수에게 뽑혔다.'로 되는데, 이런 표현은 어색하다. 서술어를 꾸미고 있는 부사어 '부지런히' 때문에 피동 표현이 자연스럽게 못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② '잡혔다'를 '풀어졌다'처럼 고치면 '잡아졌다'가 되는데, 이런 표현은 어색하다.

③ '풀리다'처럼 피동 접사 '이, 히, 리, 기'가 붙어서 된 피동문을 짧은 피동, '풀어졌다'처럼 '-어지다', '-게 되다' 같은 방식으로 실현된 피동문을 긴 피동이라 한다. ㉠의 경우에는 '풀렸다', '풀어졌다' 모두 성립하며, 뜻도 차이가 없다.

⑤ ㉠을 능동문으로 바꾸려면 주어를 '뭇'으로 할 수는 없다. '뭇'이 '뭇'을 거는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굳이 능동문으로 바꾼다면 '(부주의한 내 동작이) 내 뭇을 뭇에 걸었다.'로 할 수는 있지만, 이런 표현은 현실적으로 쓰지 않는다.

41. 해설

문법적 오류의 유사성 파악

<보기>의 문장에는 불필요한 의미의 중복이 나타나 있다.

'장애'는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처적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의 뜻을 지닌 말이므로, '가로막는'과 의미가 중복되어 있다. 그러나 ㉠에는 의미의 중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관점(觀點) :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 '보는'과 중복됨

③ 결사(決死) :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힘을 다할 것을 결심함 → '죽기를 각오하고'와 중복됨

④ 유산(遺産) : 죽은 사람이 남겨 놓은 재산 → '물려주기'와 중복됨

⑤ 정숙(靜肅) : 조용하고 엄숙함 → '조용하게'와 중복됨

42. 해설

1. 자료에 제시된 어법 지식을 이해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부사어나 관형어 같은 부속 성분은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하지만, 몇몇 특수한 경우에는 이들 성분을 생략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가]와 [나]에서 부사어가 필수 성분으로 쓰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2. 어법 지식을 답지에 적용한다.

① [가]와 [나]의 밑줄 친 성분은 모두 '다르다, 주셨다, 삼으셨다'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어이다. '일찍이'의 경우, 이 말과 꾸밈을 받는 서술어가 떨어져 있던 하지만 부사어이다. ② [가]와 [나]를 보면, '다르다'는 '...은 ...과 다르다', '주다'는 '...은 ...에게 ...을 주다', '삼다'는 '...은 ...을 ...으로

삼다'라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다르다'는 두 자리 서술어, '주다'와 '삼다'는 세 자리 서술어임을 알 수 있다. ③ [가]와 [나]를 비교하면, [가]의 밑줄 친 부분이 [나]에서 모두 생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나]의 밑줄 친 말을 생략해 보면 문장이 구성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마주치다'는 주어와 '-과'라는 부사어를 필수 성분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⑤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이므로, 서술어의 자릿수를 따질 때에는 당연히 필수 성분 중심의 문장을 영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

3. 답지에서 판단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다.

②의 경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장 성분의 수효를 확인해 보면, '다르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주다', '삼다'는 세 자리 서술어임을 알 수 있다.

### 43. 해설

어법의 이해와 적용 ㄴ에 사용된 보조사는 필연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곳은 몰라도 시골만큼은 환경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뜻으로 쓰인 것으로, 양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ㄴ의 '에서'는 부사격 조사, '라도'는 보조사이다. ③ ㄴ의 '서'는 부사격 조사, '부터'는 시작을 나타내는 보조사, '는'은 대조의 의미를 지닌 보조사이다. ④ ㄷ에 사용된 보조사는 목적격으로 사용되었으며, 대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다른 것과 비교하여 선택하는 의미를 보태고 있다. ⑤ ㄹ의 '만은'은 제한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만'과 대조의 뜻을 지닌 '은'이 결합된 경우이다.

### 44. 해설

[정답풀이]

②의 '철수는 철학책을, 영희는 소설책을 읽었다.'는 서술어가 '읽었다'로 하나이지만 이는 표면상 하나일 뿐 '역사를 읽었다 + 미술사를 읽었다'의 두 문장을 결합시키면서 동일한 서술어가 쓰여 서술어 하나를 생략한 것이다. 따라서 주술 관계가 2회이므로 출문장이 아니라 대등적으로 이어진 겹문장이 된다.

[오답풀이]

① '마주쳤다'는 것은 혼자 마주칠 수는 없고 반드시 두 사람이 마주치는 법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출문장이 된다.  
 ③ '철수는 그의 형과 다르다'는 것은 절의 형태이다. '~달리'로 부사절 역할을 한다.  
 ④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루어졌으므로, 두 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졌다.  
 ⑤ 철수도 학생이고 영희도 학생이라는 의미이므로, 이는 겹문장 중에서 접속 조사로 이어진 문장이다. 또한 철수는 영어도 구사할 줄 알고 독일어도 구사할 줄 안다는 의미이므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 경우 전자는 접속 조사로 이어진 것이 주어 역할을, 후자는 접속 조사로 이어진 것이 목적어 역할을 한다.

### 45. 해설

양태에 대한 이해 및 적용

(라)에서 '자장면이나'에 조사 '이나'가 나타내는 양태는 '점심에 자장면을 먹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니지만, 즉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다는 심리 상태'이다. 따라서 '자장면을 점심으로 가장 좋게 생각하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을걸'은 김 과장이 부산에 도착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확인을 못해 확신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구나'를 통해 B가 휴가 다녀온 것을 A가 몰랐다가 비로소 알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과연'은 의문형에 쓰여 '결과에 있어서도 참으로'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즉 어떤 사실에 대해 미심쩍어 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곤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앞에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라는 말이 있어 그가 취직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 '과연 ~ 있을까?'라는 말에 부정적 추측이 담겨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⑤ '-다고'를 사용하고 어순을 바꾸어, 그 사람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6. 해설

관용적 표현의 이해와 적용

④에서 '손'은 문맥적 의미상 신체적인 의미의 '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관용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손이 크다'가 관용적 용법으로 활용이 되려면, '썸썸이가 후하고 크다'의 의미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손이 큰 어머니는 친구가 오면 언제나 음식을 푸짐하게 차리곤 하셨다.'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의 '불을 끄다'는 화재를 의미하는 1차적 의미가 아니라, '급한 일을 처리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②의 '어깨'는 '무거운 책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깨가 무겁다'는 것은 '책임으로 인해 마음에 부담이 크다'는 의미로 쓰인다.

③의 '가슴이 아리다'는 신체를 의미하는 '가슴'이 아린 것이 아니라, 의미가 확장되어 '몹시 가엾거나 측은하여 마음이 알알하게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⑤의 '목구멍에 풀칠하다'는 '끓지 않고 겨우 살아간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47. 해설

풀이

선어말 어미 '시'는 상대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다.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오답 피하기

② 선어말 어미는 항상 '구나, 다, 소서'와 같은 종결 어미 앞에 위치한다. ③ '만수무강하옵소서'의 '옵'은 말하는이가 상대에게 각별히 공손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공손 선어말 어미이다. ④ '피었다'의 '었'은 과거 시제를, '오겠다'의 '겠'은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⑤ '잡으셨다'의 '셨'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 '시'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인 '었'이 결합하여 한 음절로



축약된 것이다.

48. 해설

관형어의 특성 파악

관형어의 개념, 성립과 쓰임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보기 1>을 활용하여<보기 2>의 용례에 적용, 관형어의 특성을 살펴보는 문제이다. ㉔의 '모든'의 경우는 조사나 어미가 붙어서 형성된 관형어가 아니라 '모든' 그 자체가 관형사에 해당하므로<보기 1>의 '(2)-나'에 해당하는 관형어의 성립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㉔은<보기 1>의 '(2)-다'에 의거하여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된 관형어이고, ㉕은 '(2)-가'에 의거하여 조사가 붙어 성립된 관형어이다.
- ② ㉔과 ㉕에서는 관형격 조사를 생략해서 '땅', '봄 하늘'로 써도 문장이 성립된다.
- ④ ㉔의 '고운'은 '곱다'라는 형용사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성립된 관형어이다.
- ⑤ ㉔은 '(2)-라'에 의거하여 '운동화' 없이 쓰이지 못하고 '운동화를'과 위치를 바꾸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49. 해설

[높임법의 이해]

[풀이]

(2)를 보면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께'라는 조사와 '드리다'라는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4)의 경우 주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께서', '잡수신다', '진지'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㉔는 부사어로 나타난 대상을 높이기 위해 높임의 의미를 지닌 명사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므로<보기 2>의 사례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3)의 두 번째 문장의 경우, 청자인 '할머니'가 주체인 '아버지'보다 높기에 '아버지가'라고 하여 주체 높임을 쓰지 않았다.
- ② '께서'는 (1), (3), (4)에서, 선어말 어미 '-시-'는 (1), (3), (4)에서, 특정한 높임말은 (2),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4)에서 '해(하다)', '잡수시다(먹다)'의 두 서술어가 사용되었는데, 뒤의 서술어만 높이고 있다.
- ③ (5)의 '계시다'는 주체를 직접 높이는 직접 높임법에, '있으시다'는 높임의 대상인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간접 높임법에 사용한다.
- ⑤ (1), (4)는 '-니다', (2), (3)은 '-니다'를 통해 상대 높임법을 드러내고 있다.

50. 해설

청유문의 특징 이해

화자와 청자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어도 청유문은 성립한다. =에서 높임 표

현을 쓴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ㄴ의 '예쁘자'가 성립하지 않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청유문에서는 형용사를 서술어로 쓸 수 없다.
- ② 청유문의 주어는 화자와 청자가 함께 포함된다. 그래서 구어에서는 흔히 주어를 생략한 채로 사용하는데, 그래도 무방하다.
- ③ 청유문은 시간 표현에 제약이 있어서 현재 시제 말고 '-었-', '-더-', '-겠-'과 함께 나타나는 일이 없다.
- ⑤ 청유문이 간접 인용될 때에는 원래의 종결 어미가 '-자'가 아니어도 '-자'로 바뀐다. '놀아 봅시다'를 간접 인용할 때, '놀아 봅시다'고 제안했다.'는 비문이다. '놀아 보자고 제안했다.'로 어미를 '-자'로 바꾸어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것이다.

51. 해설

시제의 이해와 적용

상대적 시제는 관형사형에서 주로 나타난다. '나영이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 태호를 멀거리 쳐다보았다.'에서 '지나가는'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면 과거 시제가 된다. 주문장의 시제가 발화 이전이므로 '지나가는'도 과거가 된다. 그러나 '지나가는'의 시제를 '쳐다보았다'와 관련시키면 현재가 된다. '지나가는'의 사건시와 '쳐다보았다'의 사건시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곧, 과거에 있어서의 현재가 된다. 이렇게 본다면 ㉔에서 '마실'은 상대적 시제로 과거에 있어서의 미래가 된다. 또 ㉕의 '화사한'은 과거 속의 현재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 ㉔ 문장 전체의 절대적 시제인 현재만 나타나 있으며, ㉕ '안개로 인해'에는 시간 표현이 들어 있지 않다. 또 '걸리고 말았다'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관계이므로 두 가지 시제로 간주하지 않는다.

52. 해설

부사어 활용의 이해와 적용

④의 경우 '눈이 아주 많이 왔어.'의 '아주'는 다른 부사어 '많이'를 수식하지만, '아주 눈이 많이 왔어.'와 같이 자리바꿈이 가능하다. 적절한 예로는 '내가 아주 새 만년필을 잃어버렸다.'와 같이 '새'라는 관형어를 수식하는 경우 '아주'는 다른 곳으로 자리바꿈을 할 수 없다.

53. 해설

1.<보기>의 규정 내용을 적절하게 해석한다.

㉔는 첨어의 경우, 두음 법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몇 단어들에 대한 언급이다. 예외라는 점에서 특별한 예를 들고 있으므로 이 예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㉕는 두음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음절에 적용되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역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잘 이해해야 한다.

2.<보기>의 규정과 각 낱말의 연결이 적절한가를 확인한다.

<보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㉑의 '유유상종'은 제2음절의 경우 '류'라고 써야 하나, ㉒의 규정에 따라 '유유'를 사용한다. ㉓의 '누누이' 역시 같은 규

정의 적용이다. 그러나 ③의 '낭낭'은 ④의 그 밖의 것은 제2음절 이하에서 본음대로 적는 규정에 따라 '낭랑'이라고 적는 것이 적절하다. ④의 '몰이해'는 ⑥에서 접두사처럼 사용되는 '몰' 뒤에 있으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이며, ⑤의 '연이올'은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의 예이다.

### 54. 해설

#### 조사의 용법 이해

⑤의 '로'는 '시간을 생할 때 생에 넣는 한계를 나타내는 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시간을 나타내는 격조사의 예로는 '오늘 이후로 규칙적으로 생활하겠다. / 그는 봄가을로 보약을 먹는다.' 등을 들 수 있다.

### 55. 해설

#### [변이 형태의 구별]

<보기>의 설명으로 보아, 음운론적 변이 형태는 연결되는 것이 자음과 모음, 즉 음운과 관련된 것이고, 형태론적 변이 형태는 특정한 형태소와 결합할 때만 선택되는 것을 일컫는다. 따라서 ㉠에 해당하는 것은 ③의 '하여'이다. <보기>에서 예를 든 '숫다, 뛰다'의 형태에는 명령형 어미가 '아/어라'가 붙는데 특별히 '오다'의 형태에만 오직 '너라'가 붙듯이, 다른 단어들은 '막아/먹어'의 경우처럼 '아/어'를 취하는데, '하다'의 형태만은 '여'를 취하기 때문이다.

#### [오답피하기]

①의 보조사 '은/는', ②의 부사격 조사 '와/과', ⑤의 목적격 조사 '을/를' 등은 앞 음절이 자음으로 끝났는가 모음으로 끝났는가에 따라 다르게 결합됨을 보여 준다. ④의 '이/가'도 앞의 주어가 자음과 모음 중 어떤 것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주격 조사를 보여 준다. 따라서 형태소 때문에 특이한 형태가 나타난 경우에 해당하는 ③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능은 같지만 자음과 모음 등의 음운과 관련되는 환경에서 달리 실현되는 경우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 56. 해설

#### [정답공략]

1. 자료에 제시된 어법 지식을 이해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부사어나 관형어 같은 부속 성분은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하지만, 몇몇 특수한 경우에는 이들 성분을 생략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가]와 [나]에서 부사어가 필수 성분으로 쓰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2. 어법 지식을 답지에 적용한다.

① [가]와 [나]의 밑줄 친 성분은 모두 '다르다, 주셨다, 삼으셨다'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어이다. '일찍이'의 경우, 이 말과 꾸밈을 받는 서술어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부사어이다. ② [가]와 [나]를 보면, '다르다'는 '...은 ...과 다르다', '주다'는 '...은 ...에게 ...을 주다', '삼다'는 '...은 ...을 ...으로 삼다'라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다르다'는 두 자리 서술어, '주다'와 '삼다'는 세 자리 서술어임을 알 수 있다. ③ [가]와 [나]를 비교하면, [가]의 밑줄 친 부분이 [나]에서 모두 생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런데 [나]의 밑줄 친 말을 생략해 보면 문장이 구성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마주치다'는 주어와 '-과'라는 부사어를 필수 성분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⑤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호'이므로, 서술어의 자릿수를 따질 때에는 당연히 필수 성분 중심의 문장을 영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

3. 답지에서 판단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다.

②의 경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장 성분의 수호를 확인해 보면, '다르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주다', '삼다'는 세 자리 서술어임을 알 수 있다.

### 57. 해설

#### 어휘의 의미와 용법

<보기>에서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는 '관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라도 서로 붙여 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부부간'의 '간'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의존 명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① '이들간'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이들'에 접미사 '간(間)'이 결합된 말이므로 파생어에 해당한다.

③ '곳간'은 '곳집, 곳간'을 의미하는 '고(庫)'에 '장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간(間)'이 붙어 이루어진 말이다.

⑤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동안'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 '-간'을 붙여 '80일간'으로 써야 한다.

### 58. 해설

#### 띄어쓰기 규정의 이해

'부터'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따라서 ②는 <보기>에서 열거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오답 피하기

① '뿐'은 의존 명사이므로, ㄴ의 규정에 의거하여 띄어 쓴 것이다.

③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뉜다. '생똥'은 '생'과 '똥'의 두 어근이 합쳐진 합성어이므로 ㄷ에 의거하여 붙여 쓴 것이다.

④ '및'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로 ㄴ에 의거하여 띄어 쓴 것이다.

⑤ '강추위'는 '강'이라는 접사와 '추위'라는 어근이 합쳐진 파생어이므로 ㄷ에 의거하여 붙여 쓴 것이다.

### 59. 해설

#### [어법의 이해와 적용]

'경솔하다, 고마워하다, 솔직하다, 부지런하다' 등의 단어는 분리하여 '○○을/를 하다'라는 형태로 적을 수 없다. 그러나 '수입하다'는 '수입을 하다'와 같은 형태로 적을 수 있는 단어이므로 '수입 안 해'와 같은 표기가 가능하다.

60. 해설

**[정답공략]**

1.<보기>의 규정 내용을 적절하게 해석한다.

㉔는 첩어의 경우, 두음 법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몇 단어들에 대한 언급이다. 예외라는 점에서 특별한 예를 들고 있으므로 이 예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㉕는 두음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음절에 적용되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역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잘 이해해야 한다.

2.<보기>의 규정과 각 낱말의 연결이 적절한가를 확인한다

<보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①의 '유유상종'은 제2음절의 경우 '류'라고 써야 하나, ㉔의 규정에 따라 '유유'를 사용한다. ②의 '누누이' 역시 같은 규정의 적용이다. 그러나 ③의 '낭낭'은 ㉔의 그 밖의 것은 제2음절 이하에서 본음대로 적는 규정에 따라 '낭랑'이라고 적는 것이 적절하다. ④의 '몰이해'는 ㉕에서 접두사처럼 사용되는 '몰' 뒤에 있으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이며, ⑤의 '연이울'은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의 예이다.

61. 해설

**맞춤법 규정의 이해와 적용**

답지로 제시된 단어의 기본형을 생각해 보고, 그 기본형에 관형형 어미를 붙여 보면 쉽게 정답을 확인할 수 있다. '눅슬다, 부풀다, 되물다, 뒹굴다, 낮설다'와 같은 기본형에 관형형 어미를 붙여 보면, '눅슨, 부푼, 되물은, 뒹군, 낮선'과 같이 된다. 이 중 '되물다'는 ㄷ 불규칙 용언으로 '되물어, 되물으니, 되물은, 되물지, 되물고……' 등과 같이 활용한다.

62. 해설

**피동과 사동의 의미 파악과 적용**

㉔는 문맥의 흐름상, 외부의 소리가 나의 귀를 울려 감각이 일어난 상태를 의미하므로, 이는 '들다'의 피동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㉕는 남을 시켜서 깃발을 들도록 한 상황을 의미하므로, '들다'의 사동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㉖는 내 몸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들림을 당한 상황을 의미하므로, '들다'의 피동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63. 해설

1. 자료에 제시된 어법 지식을 이해한다.

<보기>에서는 시간 표현 중 특수한 표현에 해당하는 '실현 인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어떤 일이 실현될 것을 인식하거나 실현된 것을 인식함을 나타내는 것을 '실현 인식'이라고 한다.

2. 출제 의도를 파악한다.

'실현 인식'에 해당하는 사례를 더 찾아보라는 것이 이 문제의 요구이다.

3. 출제 의도를 고려하여 어법 지식을 답지에 적용한다.

①은 이미 실현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완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②는 도착이 늦게 실현된 것을 표현하는 '실현 인식'이다. 또는 '완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④의 경우는 과거로 생각할 수 있으나, '사원 2'의 '-았-'은 엄밀하게 따져 보면 미래의 일이므로 실현될 것을 확신하는 '실현 인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의 경우 '어머니'의 '았'은 과거를 나타낸다고 말하기 어렵다. 실현될 것에 대한 '실현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③의 '온다더라'는 '온다고 하더라'의 준말로, 여기서 '더라'는 화자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많이 온다더라.'의 경우,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은 일기 예보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그대로 옮겨 와 전달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따라서<보기>에서 다루고 있는 '실현 인식'의 예로는 적절하지 않다.

64. 해설

**표준어의 이해**

'깨뜨리다'와 '깨트리다'는 둘 다 표준어로 인정하여 쓸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내로라하다 :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
- ② '우뢰'는 '우레'를 한자어로 잘못 알고 쓴 예이므로 '우레'라고 써야 한다. 우레 : 뇌성과 번개를 동반하는 대기 중의 방전 현상. ≒ 천둥
- ④ 머리말 : 책이나 논문 따위의 첫머리에 내용이나 목적 따위를 간략하게 적은 글.
- ⑤ 짜깁기 : 직물의 찢어진 곳을 그 감의 울을 살려 본디대로 흉집 없이 짜서 깎는 일.

65. 해설

**의미 중복에 의한 어법상 오류의 파악**

- ①은 '우연하게'의 오용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중복 표현을 한 사례는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② '들이키다'와 '회고하다'가 중복되어 표현되었다.
- ③ '올해 나온'과 '햅쌀'이 중복되어 표현되었다.
- ④ '허다하다'와 '많다'가 중복되어 표현되었다.
- ⑤ '형극'과 '가시밭길'이 중복되어 표현되었다.

66. 해설

**[출제의도] 연결어미 '-고/고서, -며/면서'의 용법 알기**

한 주체가 둘 이상의 동작을 할 때에 그 동작의 '나열'이나 '선후'를 나타내려면 '-고'나 '-고서'를 써야 하고, 둘 이상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내려면 '-며'나 '-면서'를 써야 한다. ㄹ은 셋 이상의 동작을 나열하는 경우인데, 놓고 공부하며 잠을 자는 동작을 나열한 것이지만 동시에 하는 것을 서술한 것은 아니다. 이때의 '-며'는 '-고'가 잇달아 나오는 것을 꺼려서 사용한 경우이지, 동시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67. 해설

**| 어법의 이해 |**

'-겠-'은 <보기>에도 드러나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 '-겠-'은 어말어미 앞에 사용되는 선어말어미로, ①, ②, ③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를 첨가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 '-겠-'은 현재를 추측하기도 하고, 과거의 때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겠-'이 늘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는 ④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겠-'이 일인칭 주어의 의지를 드러낸다. ②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③ 상황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 추측하는 의미를 더할 수 있다. ⑤ 선어말어미의 위치는 용언의 어간 뒤, 혹은 어말어미의 앞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68. 해설

**어법에 맞는 표현 구분하기**

<보기>에서 '되-' + '-어'의 경우 이를 줄이면 '돼'가 된다고 했다. ④의 경우 앞뒤 맥락을 통해 볼 때, '사용되어야 한다'를 줄인 것이므로 '사용돼야'로 쓰여야 한다.

오답피하기

① '출중한 사람이 되어라'이므로 '돼라'로 줄여도 된다.

②의 경우 '출중한 교사가 되어고 싶어요'의 경우 '되어고'는 어색하므로 '돼고'가 아닌 '되고'로 써야 한다.

③ '출중한 사람이 되어겠니'가 아니므로(즉,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선어말어미 '-겠-'과 연결된 것이므로) '돼겠니'가 아닌 '되겠니'를 쓰는 것이 맞다.

⑤ '참 안되었네'를 줄인 말이므로 '참 안됐네'는 맞는 표현이다.

69. 해설

**어법의 사용**

단형 부정을 쓰는 것이 언어의 경제성 현상으로 바람직하지만 단형 부정으로 써서는 어색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답다, -스럽다' 같이 접미사가 결합한 용언은 단형 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신부는 별로 안 아름답다'가 아니라 '신부는 별로 아름답지 않다'고 해야 알맞은 문장이 된다.

70. 해설

**[맞춤법 규정의 이해와 적용]**

'시끄럽다, 촌스럽다'에 관형형 어미를 붙이면 '시끄러운, 촌스러운' 등과 같은 형태가 되므로 이 말들은 'ㅂ'불규칙 용언이다.<보기>의 답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ㅂ'불규칙 용언의 관형형을 줄여서 쓰는 것은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이다.

**[오답피하기]**

① 'ㅂ'불규칙 용언의 관형 활용형을 줄여서 쓸 수 없다는 답변으로 보아 적절한 내용이다.

② 준말이 인정되는 것은 '군고구마, 군밤'처럼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 한정한다고 하였으므로 '군강자, 군조개' 같은 표현은 쓸 수 없다.

③ '아/어'나 '은/는' 같은 어미를 붙여 활용해 보면 '잡다, 뽑다' 등은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④ 관형형 어미 앞에서는 어간 말음 'ㅂ'이 'ㅂ'로 바뀌어 '자랑스러운, 부끄러운' 같은 방식으로 활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71. 해설

**어법의 이해**

ㄷ(㉞)은 음운의 규칙성, 즉 비음화 현상의 예외 없는 규칙성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분류가 적절하지 않다. ㄷ(㉟)은 '주다'와 '다오'의 선택 제약성을 말해 주는 것이지만 불규칙성을 설명하는 자료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ㄷ(㉠), ㄷ(㉡), ㄷ(㉢), ㄷ(㉣) 모두 적절하다.

72. 해설

**[출제의도]** 조사 '에'와 '에서'의 사용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㉞은 접근의 의미를 지니지만 ㉟은 '있다'라는 서술어와 어울려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㉜번이다.

73. 해설

1. 어법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보기>에 제시된 규정을 확인한다.

'수컷'의 '수'는 역사적으로 명사 '?'이었다. 오늘날에도 '수캐, 수탉' 등에 받침 'ㅎ'의 자취가 남아 있다. 표준어 규정에서는 [다만 1]과 [다만 2]에 제시된 이외의 단어에서는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를 '수'로 통일하였다. [다만 1]의 경우 받침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거센소리를 이룬 단어들로서, 역사적으로 복합어가 되어 화석화한 것이라 보고 '?'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서 어느 단어까지가 이 유형으로 화석화한 것인지를 경계를 긋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규정에서 나열한 단어에 국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2]의 경우에는 발음상 사이시옷과 비슷한 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숫'의 형태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2. <보기>의 규정을 답지에 하나하나 적용한다.

① '숫늬, 숫나사, 숫은행나무'는 [다만 1, 2]에서 제시한 단어가 아니므로 '수늬, 수나사, 수은행나무'가 표준어 규정에 맞는 말이다. ② [다만 1]에서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고 하였으므로, '암강아지, 암캐, 암컷, 암탉' 등도 표준어이다. ③, ④, ⑤ [다만 1]과 [다만 2]를 제시한 것은 여기에 제시된 단어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에 이어 거센소리가 오는 것을 인정하거나 '숫-'이 결합하는 형태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다만 1]과 [다만 2]의 예외적 사례를 표준어로 기억해서 사용해야 한다.

3. 답지가 <보기>의 규정을 바르게 적용한 것인가를 판단한다.

[다만 1]의 규정을 '암, 수' 뒤에 'ㄱ, ㄷ, ㅂ'이 이어지는 경우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다만 1]의 의미는 이 규정에서 나열한 단어에 국한하여 거센소리가 나는 단어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74. 해설

[표준어의 이해와 적용]

건너편에 있는 마을은 '건너마을'이 아닌 '건넌마을'이다. 한글 맞춤법 제30항의 '사이시옷에 대한 규정'에서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에는 '아랫니, 텃마당, 텃머리, 잇몸'처럼 'ㅅ'을 받쳐 적어야 한다. 또한 '마음이 가라앉지 아니하고 들떠서 두근거리다'의 의미를 갖는 단어는 '설레이다'가 아닌 '설레다'가 맞춤법에 맞는 표준어이다.

[오답피하기]

- ① '불쌍하고 딱하다'의 의미를 갖는 단어는 '가엷다'와 '가엷다'가 모두 올바른 표현이며, '전혀 소식이 없는 상황'의 의미를 갖는 단어도 '감감소식'과 '감감무소식' 모두 올바른 표현이다.
- ② '소리가 조금 작은 듯하다'의 의미는 '나즈막하다'가 아닌 '나지막하다'가 올바른 표현이며, '사이시옷에 대한 규정'에서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에는 'ㅅ'을 받쳐 적어야 하므로 '노래가락'이 아닌 '노랫가락'이 올바른 표현이다.
- ④ 감정이나 힘 따위가 속에서 치밀어 오를 때 사용하는 말은 '복받치다'나 '복받치다'가 모두 올바른 표현이며,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사용하는 말은 '안절부절하다'가 아닌 '안절부절못하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 ⑤ 과거의 일 등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은 '잊혀지다'가 아닌 '잊히다'가 올바른 표현이며, 잇따라 여러 번 되풀이할 때 사용하는 말은 '연거퍼'가 아닌 '연거푸'가 올바른 표현이다.

75. 해설

[어법의 이해와 적용]

<보기>에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부사어가 있다고 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사어가 사용된 예는 ④이다. ④의 '모름지기'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생략을 하더라도 '젊은이는 큰 포부를 지녀야 한다.'와 같이 문장이 성립한다.

- 오답피하기 ① '어머니와'가 생략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② '생겼다'를 수식하고 있는 '멋지게'가 생략되면 문장이 온전한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③ '수양딸로'가 생략되면 문장이 온전한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⑤ '자연에'는 '동화되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다.

76. 해설

자음 동화의 이해와 적용

<풀이>

'술잎'의 경우에는 '술'과 '잎'이 결합하면서 둘 사이에 'ㄴ'이 첨가되고, 그 'ㄴ'이 앞의 'ㄹ'과 만나 자음 동화를 일으켜 'ㄹㄴ'로 발음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이때의 'ㄹㄴ→ㄹㄴ'의 동화는 정상적인 자음 동화로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오답피하기>

- ①의 'ㄴ→ㅇ', ②의 'ㄹ→ㅇ', ④의 'ㄷ→ㄱ', ⑤의 'ㅃ→ㄱ' 등의 동화는 <보

기>에서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로 제시한 것들이다.

77. 해설

<풀이>

<보기>의 규정은 'ㅣ'모음 역행 동화에 의한 발음을 인정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내기'와 '뽕비'를 인정한다는 것과 기술자인 경우에만 접미사 '-장이'를 붙인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②는 규정 자체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절한 반응이고, ①은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이며, ③은 예외 조항을 인정하게 된 과정을 추측한 것이므로 역시 적절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④는 '유기장이'가 '눗그릇을 만드는 기술자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그러나 ⑤는 <보기>의 규정이 두 종류의 발음 형태가 동시에 쓰일 때 어느 한 쪽을 표준어로 정할 것인가를 정해 놓은 규정이고 '멋장이'가 원래 형태에 해당하는 말임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못한 반응이다.

78. 해설

[외래어 표기법의 이해와 적용]

- ②는 ㉠의 규정만을 적용하여 '슈퍼마켓'으로 쓰는 것이 맞다. ㉡를 참조할 때, [ju]는 '슈'로 표기해야 하므로, '수퍼'는 적절한 표기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①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는 ㉢의 규정에 따라 '버스'가 맞다.
- ③ 'ㅈ'이 파찰음이므로 이중 모음 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의 규정에 따라 '주스'가 맞다.
- ④ [j]는 어말에서 '시'로 적는다는 ㉡의 규정에 따라 '플래시'가 맞다.
- ⑤ 파찰음 표기에서는 이중 모음 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의 규정에 따라 '초'가 아니라 '초'로,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적는다는 ㉡의 규정에 따라 '릿'으로 써서, '초콜릿'이 맞는 표기이다.

79. 해설

문장 부호의 바른 사용

- ㉡의 경우 '아무도 그 일에 찬성하지 않을 거야. 혹 미친 사람이면 모를까.'로 바꾸어 [붙임 2]의 또 다른 사례로 제시할 수는 있지만 [붙임 1]의 사례로는 제시할 수 없다.

80. 해설

부정문의 이해

- ④의 경우 (ㄴ)을 '못' 부정문으로 바꾸었을 때 능력에 대한 부정이 되는 것일 뿐 부정의 정도가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안' 부정문이 되면 의지에 의한 부정임을 드러낸다.  
② '못'을 '못하다'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 긴 부정문이다.

③ '안 알른다'라고 하면 어색한 문장이다. '사랑하다'의 경우도 '안 사랑하다'가 어색하다. 왜냐하면 서술어가 명사+'-이다'의 형태이거나 합성어나 파생어일 때, 또는 음절이 긴 말일 때에는 긴 부정문이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⑤ '말다'는 청유문과 명령문의 긴 부정문에 사용되는 용언이다.

81. 해설

어휘 · 어법 (인칭 대명사의 특성 파악)

정답해설 : '㉠그쪽'은 아버지의 책을 부탁받는 당사자이다. '㉡당신' 역시 같은 대상이다.

[오답피하기] ① '㉠내'는 '㉡나'와 같은 1인칭 대명사이다. '㉢내'는 '가'라는 주격 조사 앞에 쓰이고, '㉣나'는 은/는 앞에 쓰인다. '내'가 '나의'의 줄인 말로 쓰이는 경우는 '내 물건'과 같은 사례에서이다. ③ '㉤우리'는 바로 아버지의 책을 부탁하고 있는 '나'를 포함한 '나의 형제자매들'을 가리킨다. 그렇기에 '㉣나'를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그쪽'은 내가 부탁하고 있는 당사자이기에 우리에게 포함되지 않는다. ④ 앞 문장에 나온 말을 반복할 때 대명사를 쓰는 것은 맞다. 하지만 반드시 대명사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 대상이 혼동되지 않고 분명할 때만 대명사를 쓸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아버지'를 '당신'이란 대명사로 바꾸어 쓸 수도 있지만, 현재의 쓰임이 어색한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바꾸어 쓸 필요는 없다. ⑤ '㉢당신'을 '자기'로 바꾼다면 뒤에 이어지는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다. 현재의 '당신'이 높임법에 맞는 것이다.

82. 해설

어법의 이해

한글 맞춤법 제15항 [붙임 2]에서는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의 '요'는 둘 다 보조사로, 모두 생략해도 '마음은 더없이 좋아.'와 같이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만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보조사 '요'를 말의 중간과 끝에 붙인 것이다.

②의 '요'도 문장의 끝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③은 연결형이므로 '이요, 아니요'가 된다. 영어의 'YES'와 'NO'에 해당하는 긍정과 부정의 대답은 '예, 아니오'가 맞다.

④와 같이 '오'가 종결 어미로 쓰일 때, '설명, 의문, 명령, 청유' 등의 문장이 될 수 있는데, ④의 예문은 명령형 문장이다.

83. 해설

어법의 이해와 적용

'엉겨들다'는 '여러 가지 물체가 한데 덩이가 저 달라붙다.', '여럿이 한데 무리로 뭉치다.'의 뜻을 가진 말로, <보기>로 보아 '엉기다'와 '들다'의 두 동사로 분리되기 어렵다.

84. 해설

[표준어 규정의 적용]

기술자, 곧 장인(匠人)이라는 뜻이 살아 있는 말은 '미장이, 유기장이, 대장장이, 도배장이' 등이다. 미장은 '건축 공사에서 벽이나 천장, 바닥 따위에 흙, 회, 시멘트 따위를 바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유기장은 '고리버들로 고리짜이나 키 따위를 만들어 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한다. 대장장은 '대장일을 하는 기술자'를 뜻하며, 도배장은 '도배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을 뜻한다.

[오답피하기]

'중매장이'는 중매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중매 기술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중매쟁이'가 표준어이다. '소금장이'는 소금과 관계된 일을 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곤충의 이름이므로 '소금쟁이'가 표준어이다. 또한 '멋쟁이, 개구쟁이, 극성쟁이' 등에도 기술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멋쟁이, 개구쟁이, 극성쟁이' 등이 표준어이다.

85. 해설

[맞춤법 규정의 이해와 적용]

'ㄹ' 받침 뒤라는 환경에서 같은 된소리로 발음되면서도 예사소리와 된소리로 구분하여 적는 근거는 한글 맞춤법 제53항의 규정이다. 같은 형태소가 'ㄹ' 받침 뒤가 아닌 환경에서 예사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 계열의 형태소들(비의문형어미)은 예사소리로 적고,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 계열의 형태소들(의문형 어미)은 된소리로 적어야 한다. 즉, 의문형 어미 '습니까', '부니까'와 같은 경우가 있으므로 'ㄹ' 받침 뒤라는 환경에서도 된소리로 적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울게요', '거룩할지니라'는 종결 어미인데도 예사소리로 적고 있다.

③ '먹을까', '할까'는 낮춤 표현인데도 된소리로 적었다.

④ '어찌할꼬', '힐쏘냐' 등은 옛말 어투의 어미인데도 된소리로 적었다.

⑤ <보기>의 문장들 중 특별히 완곡한 표현이라고 볼 만한 것은 없다.

86. 해설

품사의 이해와 사용

<보기 1>에 나와 있듯이 ㉠은 '뭇'으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며, 이때의 '뭇'은 의존 명사 '뭇이'의 준말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바꾼다고 해도 품사는 변화

지 않고 그대로 의존 명사이다.

오답피하기

- ① 용언에 붙어 있는 '듯'은 어미로 보면 된다.
- ② 어미 '듯'은 '듯이'가 본말이므로 바꾸어 써도 의미에 변화가 없다.
- ⑤ ㉠을 '듯'으로 바꾸면 수식 관계에 있는 뒷말 '날씨'와 연결되지 않으므로 바꾸어 쓸 수 없다.

87. 해설

[맞춤법 규정의 이해와 적용]

'ㄹ' 받침 뒤라는 환경에서 같은 된소리로 발음되면서도 예사소리와 된소리로 구분하여 적는 근거는 한글 맞춤법 제53항의 규정이다. 같은 형태소가 'ㄹ' 받침 뒤가 아닌 환경에서 예사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 계열의 형태소들(비의문형어미)은 예사소리로 적고,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 계열의 형태소들(의문형 어미)은 된소리로 적어야 한다. 즉, 의문형 어미 '습니까', '느냐'와 같은 경우가 있으므로 'ㄹ' 받침 뒤라는 환경에서도 된소리로 적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 '올게요', '거룩할지니라'는 종결 어미인데도 예사소리로 적고 있다.
- ③ '먹을까', '할까'는 낮춤 표현인데도 된소리로 적었다.
- ④ '어찌할꼬', '힐쏘냐' 등은 옛말 어투의 어미인데도 된소리로 적었다.
- ⑤ <보기>의 문장들 중 특별히 완곡한 표현이라고 볼 만한 것은 없다.

88. 해설

[재귀 대명사의 이해와 적용]

④의 '저희'는 '우리'의 낮춤말로 쓰인 대명사이다. 만약에 '아들 내외가 또 사정을 하러 집에 찾아왔지만 저희가 뭐라 해도 절대 봐 주지 않을 것이다.'와 같은 경우라면 '저희'가 재귀 대명사로 쓰인 것이다.

[오답피하기]

재귀 대명사는 선행하는 3인칭 주어를 먼저와 다음없이 가리키는데, 넓은 의미로는 '당신, 저, 저희, 스스로, 자신' 등이 재귀적 용법으로 쓰인다. ①의 '제'는 '저의'의 준말이므로 재귀 대명사 '저'를 포함하고 있고, ②의 '자기'는 '내 여자 친구'를, ③의 '당신'은 '아버님'을, ⑤의 '스스로'는 '고위 공직자'를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들이다.

89. 해설

[출제의도] 명사형 어미와 접미사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 1>의 내용을 보면 파생된 명사는 서술성이 없고, 동사의 명사형은 서술성이 있다. <보기 2>의 ㄴ에서 '잠1'은 서술성이 없고 '잠2'는 서술성이 있다. 그러므로 '잠1'의 '-ㅁ'은 접미사이고, '잠2'의 '-ㅁ'은 명사형 어미이다.

90. 해설

조사의 의미 및 용법 이해

'국회의원'은 '정부'와 달리 유정 명사이므로 '국회의원에게'라고 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도착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는 '에'이며, '로'는 장소와 방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여기서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에'와 도착하는 곳을 나타내는 '에'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표현을 생각하면 '집으로 갔다.'라는 말은 성립하지만 '집으로 도착했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91. 해설

[출제의도] 문법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ㄷ의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런데 ㉠에서 이를 '말하는 사람의 기대'와 관련하여 해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식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의지와 관련이 있다. ② '비가 오지 않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④ '14초 이내로 달리지 못하는 것'은 능력에 해당한다. ⑤ '폭설'은 외부 상황에 해당한다.

92. 해설

외래어 표기법의 이해와 적용

<풀이>

②는 ㉠의 규정만을 적용하여 '슈퍼마켓'으로 쓰는 것이 맞다. ㉡를 참조할 때, [ju]는 '슈'로 표기해야 하므로, '수퍼'는 적절한 표기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①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는 ㉠의 규정에 따라 '버스'가 맞다.
- ③ 'ㅈ'이 파찰음이므로 이중 모음 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의 규정에 따라 '주스'가 맞다.
- ④ [i]는 어말에서 '시'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플레이시'가 맞다.
- ⑤ 파찰음 표기에서는 이중 모음 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의 규정에 따라 '초'가 아니라 '초'로,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적는다는 ㉣의 규정에 따라 '릿'으로 써서, '초콜릿'이 맞는 표기이다.

93. 해설

[어미 '오'와 어미 '요' 및 조사 '요'의 의미와 기능 이해]

㉤에서 '요'는 '모르겠어?'의 해체 뒤에 붙어서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곧, 청자가 아저씨라서 그를 높이기 위해서 붙인 말이다. '요'가 없어도 의문문의 형식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의 '요'는 전혀 의문의 뜻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피하기]

- ①의 '요'는 둘 다 보조사로, 모두 생략해도 '마음은 더없이 좋아.'와 같이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만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보조사 '요'를 말의 중간과 끝에 붙인 것이다.
- ②의 '요'도 문장의 끝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 ③은 연결형이므로 '이요, 아니요'가 된다. 영어의 'YES'와 'NO'에 해당하는 긍정과 부정의 대답은 '예, 아니오'가 맞다.
- ④와 같이 '오'가 종결 어미로 쓰일 때, '설명, 의문, 명령, 청유' 등의 문장이 될 수 있는데, ④의 예문은 명령형 문장이다.

### 94. 해설

#### 관형어와 접두사의 이해와 적용

㉞의 '한겨울'은 '추위가 한창인 겨울'을 의미하므로, 여기에서 쓰인 '한'은 '오랜'의 의미가 아니라 '한창'의 의미로 쓰였다. '오랜'의 의미로 쓰인 예로, '한동안, 한창, 한평생' 등이 있다.

#### 오답피하기

- ①의 ㉠은 특정한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으로서의 '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하나의'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의 ㉡은 문맥상 '대충' 또는 '대략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③의 ㉢은 '서로 마음이 맞아 같이 모이는 패거리'를 의미하므로 '같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의 ㉣은 '일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될 만한 많은 돈'을 의미하므로 접두사 '큰'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95. 해설

#### 접사의 의미 분석

시간이나 장소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해당 시간 또는 장소 근처를 가리킬 때 '쯤, 깨, 경, 가랑'과 같은 접사를 사용한다. '정도'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들 접사는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다. 'ㄱ~ㄷ'을 살펴보면 '경'은 '특정한 시간이나 날짜에 가까운 때'를 의미하는 말로, '수량의 정도'를 나타낼 때 쓰이면 어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피하기

- ① 'ㄱ'을 보면, 3월이라는 단어 뒤에 붙어 '시간'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쯤', '깨', '경'이 모두 자연스럽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ㄱ, ㄴ'에서 '쯤', '깨'는 시간뿐 아니라 공간의 정도를 뜻하는 말로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ㄱ~ㄷ'에서 '쯤'에는 어색하다는 표시인 \*가 어디에도 붙지 않았다. 따라서 '쯤'은 시간과 공간은 물론 수량의 정도까지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⑤ 'ㄴ, ㄷ'을 살펴보면 '가랑'은 수량의 정도를 뜻할 때는 자연스럽게, 공간의 정도를 뜻하는 말로는 쓰일 수 없다.

### 96. 해설

#### 국어 조사의 이해

ㄴ의 '과'와 ㄷ의 '와'는 앞말의 의미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아니다. '과'와 '와'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접속 조사로서, '과'

는 받침이 있는 체언 뒤에 붙고, '와'는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 붙는다. 오답피하기

- ① ㄱ의 '께서, 예' 등이 앞말에 붙어 문법적 기능을 나타낸다.
- ② ㄱ의 '께서'는 대상을 높여서 말하는 존대의 의미를 나타낸다.
- ㄴ의 '이'는 '형과 동생'이 결합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 ⑤ ㄷ의 '만의'에서 '만'과 '의'는 모두 조사인데 이둘끼리 결합해서 '만의'를 형성한 것이다.

### 97. 해설

#### 어법의 이해

㉞의 '이번으로'에서 '으로'는 '이번'이라는 시간적 범위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간을 셈할 때 셈에 넣는 한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은 '강릉'이라는 지명과 관련하여 가고자 하는 목적지나 방향을 나타낸다.
- ② ㉡은 갑자기 내린 '눈 때문에'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명사 뒤에 붙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나타낸다.
- ③ ㉢은 '눈이 덮여 멋진 모습으로' 변했다는 데서 '으로'는 어떤 결과로 바뀌거나 변화했음을 제시하는 기능으로 쓰이고 있다.
- ④ ㉣에서 '으로'는 회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자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98. 해설

#### 어휘의 의미 구분

'듣다'가 '감각 기관을 통해 소리를 알아차리다.'의 중심의미로 사용된 것을 찾으면 된다. 이와 같이 사용된 것은 '발자국 소리를 알아차리다.'의 의미를 갖는 ㉣이다. '낮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 나는 멍청했다.'와 같이 피동 문장으로 바꾸어도 옳은 문장이 된다.

#### 오답피하기

- ① '다른 사람의 말이나 소리에 귀 기울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 그렇게 하다.'의 의미이다. ③ '악 따위가 효령을 나타내다.'의 뜻. ⑤ '기계나 장치 따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다.'의 뜻

### 99. 해설

#### 어휘 어법 (자료를 통한 어법 사용의 이해)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사례들은 종결어미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는 경우이다. 이 사례들을 분석하면 종결어미가 다양한 문법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실제 발화 상황에서 이를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①은 적절한 진술로 보기 어렵다. 제시된 종결 어미들 중 문장의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제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똑똑하다고'의 '-고', '가느냐가'의 '-가'는 문장 성분을 표시해 주는 조사로 종결어미 뒤에 사용되었다. ③ '그치겠다'의 '-다'는 진



술, '그치겠니?'의 '-니?'는 의문, '그치겠구나!'의 '-구나!'는 감탄의 의도를 나타낸다. ④ '듣습니까?'의 '-습니까?', '듣소?'의 '-소?'는 발화 상대의 지위나 연령에 따른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상대높임법을 위한 어미이다. ⑤ '앉아라'의 '-아라'는 명령형 종결 어미로 '가다'와 '가다'로 끝나는 동사, '오다'와 '오다'로 끝나는 동사를 제외하고 끝 음절의 모음이 'ㅏ, ㅑ'인 동사 어간 뒤에 붙으며, '먹어라'의 '-어라' 역시 명령형 종결 어미로 끝 음절의 모음이 'ㅏ, ㅑ'가 아닌 동사 어간 뒤에 붙는다.

### 100. 해설

#### 어법의 파악

㉓, ㉔, ㉕는 순 우리말 합성어로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이다. ㉖, ㉗는 순 우리말 합성어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나는 경우이다. 따라서 같이 묶일 수 있다.

### 101. 해설

#### [정답공략]

1.<보기>에 제시된 맞춤법 규정을 확인한다.

<보기>의 해설에서 설명한 것처럼 접미사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이란, 곧 동사나 형용사로 파생될 수 있는 어근을 말한다. 이러한 어근의 형태를 고정시킴으로써, 그 의미가 쉽게 파악되도록 하자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이다.

2.<보기>의 규정을 답지에 하나하나 적용한다.

'빼죽거리다', '출죽하다' 등의 형태가 있으므로 '빼죽이'와 '출죽이'는 올바른 표기라고 볼 수 있다(①, ②). 한편,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 접미사가 붙은 말에는 '매미', '뼈꾸기', '동그라미', '부스러기' 등이 있다. '부스러거리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은 잘게 부서진 물건을 뜻하는 '부스러기'와는 관계없는 말이다(③, ④).

3. 답지가<보기>의 규정을 바르게 적용한 것인가를 판단한다.

'누덕'에 실제로 '하다'나 '거리다'를 붙여 보면 '누덕하다'나 '누덕거리다'와 같이 되는데 이러한 말은 없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 102. 해설

#### [단어 형성에 대한 이해와 적용]

'채'는 '체'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쓰이지만 그 의미는 다르게 사용된다. 즉, '채'는 '무엇을 하는 그대로의 상태'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인데, 이때 형용사의 관형사형은 절대로 올 수 없다. 그런데 ④의 경우 '노랗다'라는 형용사의 관형사형인 '노란'이 '채' 앞에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한 사용으로 볼 수 없다.

### 103. 해설

#### 어법의 이해와 적용

#### 풀이

㉔ 부사어 뒤에 붙어,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말의 용례로는 '다 잘들 있었어?'를 들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그동안 잘 지냈어?'의 '지냈어' 뒤에 '들'을 붙이면, '들'은 종결 어미 뒤에 붙은 꼴이 되어 '지냈어'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 주므로 ㉔의 용례가 된다.

○ '소말돼지 ( )은 가축이다.'의 경우, 빈칸에 '들'을 넣으면 그 '들'은 '소, 말, 돼지'를 모두 가리키면서 동시에 '가축'에는 '소, 말, 돼지' 이외에도 같은 종류의 동물이 더 있음을 뜻하게 되므로 ㉔의 용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소말돼지 ( )은 가축이다.'의 빈칸에 '등'을 넣으면 그 '등'은 '가축'에는 '소, 말, 돼지' 이외에도 같은 종류의 동물이 더 있음을 뜻하게 되므로 ㉔의 용례도 될 수 있다.

○ '과일은 배, 사과 ( ) 두 가지만 샀다.'의 경우, 빈칸 뒤에서 '두 가지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배, 사과'일 것이므로 ㉔의 용례가 된다.

### 104. 해설

#### 어법 규정의 이해와 적용

'유행(流行)'의 '流'는 '류'가, '이발(理髮)'의 '理'는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와서 두음 법칙에 따라 '유, 이'로 적은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제10항 규정과 연관을 지을 수가 없다.

#### 오답 피하기

② '냥(兩)'과 '년(年)'은 '야'와 '여'가 아닌 '냐'와 '녀'가 그대로 쓰여 두음 법칙의 예외로 쓰였으므로 '제10항-다만' 규정에 해당이 된다.

③ '남녀(男女)'나 '은닉(隱匿)'에서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곳에서 '여'나 '이'가 아닌 '녀'와 '니'로 그대로 쓰였으므로 '제10항-[붙임 1]' 규정에 해당이 된다.

④ '극락(極樂)'이나 '연로(年老)'에서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곳에서 '나'나 '노'가 아니라 '라'와 '로'로 쓰였으므로 '제12항-[붙임 1]' 규정에 해당이 된다.

⑤ '중노동(重勞動)'이나 '비논리적(非論理的)'에서는 단어의 앞에 '중'과 '비'가 쓰여 뒤의 '로'를 '로'로 쓰지 않고 한자가 붙어서 된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노'로 쓰고 있으므로 '제12항-[붙임 2]' 규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105. 해설

#### 어휘 사용의 오류 파악

②에서 '푸르른'은 '푸른'이라는 표준어의 형태를 일부 바꾸어서 사용함으로써 어휘 사용이 잘못된 경우이므로 <보기>의 밑줄 친 '으시덴다'와 유사한 잘못을 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① '쫓는'을 써야 하는데 '쫓는'을 쓴 경우로, 단어의 의미를 혼동하여 어휘 사용이 잘못된 경우이다. '쫓는'의 기본형 '쫓다'는 '목표, 이상, 행복 따위를 추구하다.'라는 뜻이고, '쫓는'의 기본형 '쫓다'는 '어떤 자리에서 떠나도록 내몰다.'라는 뜻이다.

- ③ '뚜렛'은 '뚜렛해'에서 접사와 어미를 부당하게 생략함으로써 어휘 사용이 잘못된 경우이다.
- ④ '역전'의 '전(前)'은 바로 뒤에 오는 '앞'과 뜻이 같으므로, 이 경우는 같은 뜻의 말을 중복 사용함으로써 어휘 사용이 잘못된 경우이다.
- ⑤ '가리켰다'를 써야 하는데 '가르쳤다'를 쓴 경우로, ①처럼 단어의 의미를 혼동하여 어휘 사용이 잘못된 경우이다. '가리키다'는 '손가락 따위로 어떤 방향이나 대상을 집어서 보이거나 말하거나 알리다.'라는 뜻이고, '가르치다'는 '지식이나 기능, 이치 따위를 깨닫거나 익히게 하다.'라는 뜻이다.

### 106. 해설

#### [시제의 이해와 적용]

상대적 시제는 관형사형에서 주로 나타난다. '나영이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 태호를 멀거리 쳐다보았다.'에서 '지나가는'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면 과거 시제가 된다. 주문장의 시제가 발화 이전이므로 '지나가는'도 과거가 된다. 그러나 '지나가는'의 시제를 '쳐다보았다'와 관련시키면 현재가 된다. '지나가는'의 사건시와 '쳐다보았다'의 사건시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곧, 과거에 있어서의 현재가 된다. 이렇게 본다면 ㉠에서 '마실'은 상대적 시제로 과거에 있어서의 미래가 된다. 또 ㉡의 '화사한'은 과거 속의 현재에 해당한다.

#### [오답피하기]

- ㉠ 문장 전체의 절대적 시제인 현재만 나타나 있다.
- ㉡ '안개'로 인해'에는 시간 표현이 들어 있지 않다. 또 '걸리고 말았다'는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의 관계이므로 두 가지 시제로 간주하지 않는다.

### 107. 해설

#### [표준어의 이해와 적용]

원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 '위'를 표준어로 삼는 단어로는 '위쪽, 위쪽, 위채, 위층, 위치마, 위턱, 위팔' 등이 있고,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데, '웃든, 웃어른' 등이 있다. 그 밖에는 '윗'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의 '윗층'은 '위층'의 잘못이다.

### 108. 해설

#### [올바른 외래어 표기]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 또는 부질없거나 시시한 일'을 의미하는 외래어의 바른 표기는 '난센스'이다.

#### [오답피하기]

- ㉡ '신호를 울리는 장치'를 의미하는 외래어는 '부저'가 아닌 '버저'가 바른 표기이다.
- ㉢ '둘 이상의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만나는 일'을 의미하는 외래어는 '랑데뷰'가 아닌 '랑데부'가 바른 표기이다.
- ㉣ '잘 싸우자'는 의미로 외치는 외래어는 '화이팅'이 아닌 '파이팅'이 바른 표기이다.
- ㉤ '현수막'을 의미하는 외래어는 '플랭카드'가 아닌 '플래카드'가 바른 표기이다.

### 109. 해설

#### 풀이

<보기>는 국어의 사동 표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사동사의 정의와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은 형용사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여 사동사가 되는 방법과 용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넓'에 접사 '히'가 결합하여 사동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의 '햇히다'는 동사 '햇다'의 피동사로서 '히'는 사동 접사가 아니라 피동 접사이므로 '넓히다'의 '히'와 기능이 같다고 할 수 없다.

### 110. 해설

#### 의존 명사와 어미의 구별

<보기 1>에 의하면 '-지'는 의문형 어미로도 쓰이고, 의존 명사로도 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의존 명사로 쓰일 때에는 '경과한 시간(동안)'의 의미를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보기 2>에서 ㄴ의 경우 밥을 먹고 시간이 지났다는 의미를, 그리고 ㄷ의 경우에도 그를 만나고 한 달이 지났다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두 경우 모두 '-지'가 의존 명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ㄴ과 ㄷ은 앞의 말과 띄어 써야 한다.

### 111. 해설

#### 어법에 맞게 고쳐 쓰기

#### <풀이>

'이따가'는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로, 원래 '있다가'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하지는 않다. '있다가'는 '있다'의 '있-'에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끝나고 다른 동작이나 상태로 옮겨지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다가'가 결합된 말이다. '있다'에서 온 것이 분명하고 또 본뜻이 살아 있으므로 원래의 형태를 밝혀 적는다. ㉡의 경우 어떤 동작이나 상태

가 끝나고 다른 상황으로 옮겨가는 시간적 경과가 드러나므로 '있다가'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피하기>

- ① 새 한글 맞춤법에서 '몇 일'과 '며칠'을 모두 '며칠'로 통일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며칠'만을 표준어로 쓴다.
- ② 기술자는 '-장이', 성격 및 특징은 '-쟁이'로 표현한다.
- ④ 가르치다는 '지식이나 기능, 이치 따위를 깨닫거나 익히게 하다'의 의미이며, 가리키다는 '손가락 따위로 어떤 방향이나 대상을 집어서 보이거나 말하거나 알리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 112. 해설

1. 어법 지식을 활용하여 출제 의도를 파악한다.  
형태가 같은 단어의 품사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이다.
2. 자료 제시형 문제라면 정확한 분석을 통해 자료에 대해 이해한다.  
형태는 바뀌지 않고 품사만 달라지는 것을 '품사의 통용'이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문장 내에서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알아야 품사를 정확하게 구별해 낼 수 있다.
3. 어법 지식과 자료 이해를 바탕으로 답지 내용에 대해 판단한다.  
①에서는 '잘못'이 명사와 부사로, ②에서는 '대로'가 명사와 조사로, ③에서는 '크다'가 형용사와 동사로, ⑤에서는 '평생'이 명사와 부사로 쓰였다. 모두 '품사의 통용'의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④는 두 문장의 '높다'가 모두 형용사로 쓰였으므로 '품사의 통용'과는 무관하다.

### 113. 해설

어법에 맞는 표현  
<풀이>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으로는 '반드시'를, '작은 물체, 또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르게'라는 뜻으로는 '반듯이'를 쓰는 것이 옳다.

### <오답피하기>

- ①에서는 '일을 마쳤다', '답을 모두 맞혔다'로 써야 하고, ③에서는 '편지를 부쳤다', '우표를 붙여야'로 써야 한다. 또한 ④에서는 '생선을 조려서', '마음을 즐기고'로 써야 하며, ⑤에서는 '몸을 바쳤다', '다리가 음체를 받치고'로 써야 한다.

### 114. 해설

단어 형성 방법의 이해  
'웃음'은 '웃다'의 어간에 명사형으로 만들어 주는 접미사 '음'이 붙어 파생된 말로서 자립성이 강한 명사이다. 따라서 '눈웃음'은 {(눈+웃)+음}이 아니라 '{눈+웃음}'으로 분석하는 것이 옳다. '웃음'이 자립성이 강하다는 것은 '겉웃음, 못웃음, 반웃음, 코웃음, 잔웃음' 등과 같이 앞말에 명사 '웃음'이 결합한 형태라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 오답 피하기 ① '해(가) 뜬-'에 접미사 '-이'가 붙어 된 말이다.  
③ '감옥(에) 살-'에 접미사 '-이'가 붙어 된 말이다.  
④ '(열다+달다)>여달'이란 비통사적 합성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었다.  
⑤ '집집'이라는 반복 합성 명사에 접미사 '-이'가 붙어 파생이 되었다. 참고로 '다달이'도 같은 예이다.

### 115. 해설

혼동되는 어미의 쓰임  
문맥으로 볼 때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것은 자동차가 필요한 이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㉔에서는 '-니만큼'이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으)리만큼'이 쓰이는 경우는 어떤 상태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이므로 '한 걸음도 걷지 못하리만큼 지쳤다.'와 같은 문맥에서 사용해야 한다.

### 116. 해설

[특정 접두사의 용법 이해와 적용]  
'강타자(強打者)'에서 '강'은 '약(弱)'과 대조되는 '강(強)'의 의미를 지닌 접두사로서, '강명기(強靱基), 강행군(強行軍)' 등과 같이 쓰일 수 있다.

- [오답피하기]  
① '강-'이라는 접두사가 붙은 '강원장, 강기침, 강울음' 등의 품사는 명사 그대로이고, '강마르다'도 그대로 형용사이다. 접두사에 품사를 바꾸는 기능은 없다.  
② 주로 참나무를 구워서 만든 숲이 '참숲'이므로 '강참숲'은 다른 나무가 섞이지 않은 참나무로만 만든 숲이 된다.  
③ '강서리'는 늦가을에 내리는, 물기가 없는 서리를 가리킨다.

### 117. 해설

[품사의 이해와 사용]  
<보기 1>에 나와 있듯이 ㉔은 '뚝'으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며, 이때의 '뚝'은 의존 명사 '뚝이'의 준말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바꾼다고 해도 품사는 그대로 의존 명사이다.

- [오답피하기]  
① ㉔처럼 용언에 붙어 있는 '뚝'은 어미로 보면 된다.  
② 어미 '뚝'은 '뚝이'가 본말이므로 바꾸어 써도 의미에 변화가 없다.  
⑤ ㉔을 '뚝'으로 바꾸면 수식 관계에 있는 뚝말 '날씨'와 연결되지 않으므로 바꾸어 쓸 수 없다.

### 118. 해설

문법 현상의 이해

<보기>는 국어의 품사 중 감탄사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여러 용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는 '글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과 같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는 '글쎄요'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에서처럼 감탄사도 상대에 따라 비슷한 어구의 다른 형태로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피하기

- ① ㉠의 '워'는 앞선 아들의 발화에 대해 '놀람'의 의미를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 ② ㉠의 '예'는 아버지의 물음에 긍정하는 의미의 감탄사이다. 그렇지만 ㉡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놀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둑판을 사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아버지에게 호소, 설득하는 의미로 쓰인 감탄사이다.
- ④ ㉡의 '음'은 문장의 중간에 쓰였지만, 생략해도 문장의 의미 전달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또한 다른 문장 성분과 긴밀한 관계에 있지도 않으며, 쓰이는 자리의 제한도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음'이 독립어의 기능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⑤ ㉢의 '아니요'는 앞선 발화에 대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그런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에서의 '아니'는 '부정'의 의미가 아닌, '놀라거나 감탄스러울 때, 또는 의아스러울 때 하는 말'인 감탄사이므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해설

#### 119. 해설

##### 문법적 지식의 탐구

ㄷ에서 '먹어(본용언) 보다(보조 용언)'처럼 보조 용언이 사용된 형태에 시제 선어말 어미가 결합한 경우에는 '먹어 보았다 / 먹어 보겠다'처럼 보조 용언과 결합한다.

- 오답 피하기 ① '싶다'는 소망한다는 뜻을 더해 주는 보조 용언이다.
- ② 보조 용언은 제거를 해도 비문이 되지 않지만 본용언은 제거하면 비문이 된다.
- ④ 보조 용언 '싶다'의 부정은 '~지 않다'도 가능하고 '안 ~고 싶다'도 가능하다

#### 120. 해설

##### 조사 사용의 이해와 적용

④의 '글'은 먹고 사는 방법에 해당하므로 '-로써'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오답피하기

- ① '총각은'이라고 사용되었지만 이 경우는 비교 대상이 있어 '총각'으로 의미를 한정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나 이 문장에서는 단순히 주격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총각이'로 바꿔 써야 한다. 따라서 ㉡의 예에 해당한다.
- ② '아버지에게'를 아버지로부터 배웠다는 의미이므로 '아버지에게서'로 써야 한다. 따라서 ㉢의 예에 해당한다.
- ③ '일본'이 무정물에 해당하므로 '일본에'로 써야 하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다.

⑤ 간접 인용이므로 '-라는'이 아닌 '-는'을 사용해야 하므로 ㉠의 설명의 예가 된다.

#### 121. 해설

##### 어휘어법(자료를 통한 어법 사용의 이해)

정답해설 : <보기 1>은 '-마는'과 '-만은'의 문법적 성질 차이를 밝힌 것이고, <보기 2>는 '-마는'과 '-만은'을 실제 문장에 적용한 사례이다. <보기 1>을 통해 '-마는'의 경우 종결어미 뒤에 붙으며, '-만은'은 어미, 체언, 조사에 다 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보기 2>에 적용했을 때 빈칸에 '-마는'이 들어가야 할 경우는 '-마는'의 앞에 종결어미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우리 문법에서 종결 어미는 '한 문장을 종결되게 하는 어말 어미'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 종류로는 동사에 평서형 종결어미, 감탄형 종결어미, 의문형 종결어미, 명령형 종결어미, 청유형 종결어미가 있고, 형용사에는 평서형 종결어미, 감탄형 종결어미, 의문형 종결어미가 있다. 그러므로 <보기 2>의 ㉠ ~ ㉣ 중 그 앞에 종결 어미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찾으면 된다. ㉠의 경우, '오늘은 그냥 간다'의 '간다'에는 평서형 종결어미 '-다'가 사용되었으므로 '-마는'을 넣을 수 있다. 또 ㉡의 '되겠느냐' 역시 '-느냐'라는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뒤에 '-마는'을 넣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마는'이 들어갈 것은 ㉡와 ㉣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의 경우, '가서'의 '-서'는 종결어미가 아니라 연결어미이므로 '-마는'을 넣을 수 없다. ③ ㉢의 경우, '햇힌 가지'의 '가지'는 명사이므로, '-마는'이 아니라 '-만은'이 들어가야 한다고 볼 수 있다.

#### 122. 해설

##### | 어휘 용법의 이해 |

'ㄱ'에는 '기울다'의 명사형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간이 'ㄹ'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이므로 명사형은 '기울 + -ㅁ(→ 기움)'이나 '기울 + -기(→ 기울기)' 형태가 된다. 'ㄴ'에는 '잠들기', 'ㄷ'에는 '다름'이 명사형으로 쓰이게 된다. 오답피하기 'ㄴ'과 'ㄷ'에 각각 '잠들'과 '다름'을 넣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 123. 해설

[출제의도] 접사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롭다'의 경우 '평화', '자유' 등의 자립 형태소와 결합하였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124. 해설

### [정답공략]

- 어법 지식을 활용하여 출제 의도를 파악한다.  
형태가 같은 단어의 품사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이다.
- 자료 제시형 문제라면 정확한 분석을 통해 자료에 대해 이해한다.  
형태는 바뀌지 않고 품사만 달라지는 것을 '품사의 통용'이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문장 내에서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알아야 품사를 정확하게 구별해 낼 수 있다.
- 어법 지식과 자료 이해를 바탕으로 답지 내용에 대해 판단한다.  
①에서는 '잘못'이 명사와 부사로, ②에서는 '대로'가 명사와 조사로, ③에서는 '크다'가 형용사와 동사로, ④에서는 '평생'이 명사와 부사로 쓰였다. 모두 '품사의 통용'의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④는 두 문장의 '높다'가 모두 형용사로 쓰였으므로 '품사의 통용'과는 무관하다.

### 125. 해설

#### 용언의 불규칙 활용

##### <풀이>

'묻다 [埋]'는 땅에 '묻으니, 묻은, 묻어서, 묻으면' 등 규칙 활용을 한다. '물으니, 물어, 물으면' 등으로 'ㄷ'이 'ㄹ'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묻다 [問]'이다.

##### <오답피하기>

- '걷다'는 '걸으니, 걸어서, 걸은'으로, 'ㄷ'이 'ㄹ'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 '길다'는 '길으니, 길어서, 길은'으로, 'ㄷ'이 'ㄹ'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 '시다'는 '실으니, 실어서, 실은'으로, 'ㄷ'이 'ㄹ'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 '깨달다'는 '깨달으니, 깨달아서, 깨달은'으로, 'ㄷ'이 'ㄹ'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 126. 해설

#### 동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의 구별

'어떤 물체를 소유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예는 ㄷ의 '있다'이다. ㄷ의 '있다'를 '연필이 있다', '연필이 있어라', '연필이 있는 중이다' 등과 같이 활용시키면 표현이 자연스럽지가 않다. 즉 동사처럼 활용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물체를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의 '있다'는 동사적 용법이 아니라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된다.

오답 피하기 ① '어느 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머물다.'는 ㄱ의 의미이다. ㄱ은 '도서관에 있어라', '도서관에 있자', '도서관에 있는 중이다'와 같이 활용된다.

② '어떤 물체가 일정한 장소에 존재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예는 ㄴ이다. ㄴ의 '있다'는 '책이 여러 권 있어라', '여러 권 있자'에서 알 수 있듯이 명령형이나 청유형 어미 등과 결합하지 않는다.

④ '일정한 범위나 대상에 포함되다.'는 ㄹ의 '있다'의 의미이다. 이 경우 '이름이 있어라', '이름이 있자'와 같이 활용되지 않으므로 형용사적 용법에 해당한다.

⑤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는 ㅁ이다. ㅁ의 '있다'는 '양전하게 있어라', '양전하게 있자', '양전하게 있는 중이다'와 같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127. 해설

#### 맞춤법 규정의 이해와 적용

##### <풀이>

'출어지고'와 '쓰러지고'는 두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된 것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지 않고 적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보기 1>의 '[붙임1]' 규정은, 두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된 경우, '넘어지다'처럼 앞말(넘다)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면 원형(넘어)을 밝히어 적고, '드러나다'처럼 앞말(들다)의 본뜻이 유지되지 않으면 원형(들어)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출어지고'와 '바라보고'의 어간은 각각 '출어지-', '쓰러지-'이고 어미는 둘 다 '-고'임을 고려할 때, 둘 다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피하기>

- 어간은 '앉-'이고, 어미는 '-아'이다.
- 앞말인 '출다'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다.
-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
- 어간은 '눅-'이고, '-어서'는 어미이므로, 이를 구별하여 적으면 '눅어서'가 된다.

### 128. 해설

#### 어법의 이해 및 적용

③의 '이르다'는 '(어디에) 도착하다'의 의미 용법을 지닌 말이므로, '이르다' > 이르러'로 활용하는 '러' 불규칙 활용 용언이다. '이르+어>일러'로 활용하지 않고, '이르+어>이르러'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모르다'는 '모르+아>몰라'로 활용하므로 '르'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② '누르다'는 '누르+어>눌러'로 활용하므로 '르'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④ '바르다'는 '바르+아>발라'로 활용하므로 '르'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⑤ '가파르다'는 '가파르+아>가팔라'로 활용하므로 '르'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129. 해설

조어 방식의 이해

[풀이]

ㄹ의 사례로는 '새까맣다'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까맣다'에 '새'가 결합하여 '까맣다'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산들바람'은 성질을 본뜬 기법에 해당한다.

[결림돌 치우기]

- ① 누룩을 만드는 공팡이로 풀어 보면 된다.
- ② 칼이라는 사물의 특성과 같이 모로 세워 잠을 잔다는 뜻이다.
- ③ 창문을 들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여 만든 말이다.
- ④ 바늘의 생김새와 닮은 잎이라고 하여 만든 말이다.

130. 해설

[품사의 구별]

'있다, 없다'는 (가)와 같이 평서형의 현재형에서는 형용사와 성격이 같다. 그리고 (나)와 같이 관형사형에서는 활용 방식이 동사와 같다. 관형사형 어미를 취할 때 '(으)ㄴ'이 아닌 '는'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와 같이 의문형에서는 동사와 같고, (라)와 같이 강탄형에서는 형용사와 같은 활용형을 보여 준다. 또한 (마)와 같이 '있다'가 명령형과 청유형을 취할 수 있는데 반하여, '없다'는 명령형과 청유형을 취하지 못하는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내용과 달리 ②에서는 관형사형의 활용 방식이 형용사와 같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31. 해설

시제의 용법 이해

'-던'만을 사용했다고 하여 가까운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던'은 회상 선어말 어미 '-더-'와 관형사형 어미 '-ㄴ'이 합쳐진 형태로 과거 회상의 의미를 나타낸다.

오답 피하기 ① '어제'와 호응하여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② '-었-에' '-었-'이 더해지면 발화시보다 훨씬 전의 일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 ④ '-던'이 사용되면서 과거 회상을 나타낸다.
- ⑤ '-은'을 사용하여 발화시보다 전 시간을 나타낸다.

132. 해설

어법에 맞는 표현

<풀이>

'넙다랗다'는 비표준어이고, '넙따랗다'가 표준어이다. 어원을 따져보면 '넙-'이라는 어근에 '-다랗-'이라는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지만, 넙리 쓰이는 발음을 따라서 '넙따랗다'를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어간 발음이 'ㄹ' 받침인 용언이 접미사와 결합하여 파생어가 되는 경우, 'ㄹ'이 'ㄷ'로 발음되면 아예 '넙따랗다, 넙찍하다, 짤따랗다, 짤막하다, 알따랗다, 알찍하다, 알팍하다' 등과 같이 표기하도록 한글 맞춤법 제2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기본형이 '객쩍다'이므로 '객쩍은'으로 써야 한다.
- ② 어간인 '거칠-'에 어미 '-ㄴ'이 결합하면서 'ㄹ'이 탈락하므로 '거친'으로 써야 맞다.
- ③ '계양대'가 표준어이다.
- ⑤ 어근 '뒹-'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뒹인'으로 써야 맞다.

133. 해설

잉여적 표현의 이해

<풀이>

④는 의미상 중복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새벽'은 새벽시의 높임말, 잉여적 표현의 이해 '시덥'은 '시집'의 높임말이다.

<오답피하기>

- ① 자매라는 말은 여성끼리의 형제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여성'이 중복되었다.
- ② '초가'의 '가(家)'와 '집'이 중복되었다.
- ③ 살인죄는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므로, '불법'은 의미상 중복되는 불필요하게 쓰인 단어이다.
- ⑤ '동해'의 '해(海)'와 '바다'가 중복되었다.
- ④는 의미상 중복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새벽'은 새벽시의 높임말.

134. 해설

[어법의 이해 및 적용]

<보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히-, -리-, -기-'는 사동(주동의 대응 개념)과 피동(능동의 대응 개념)에 모두 쓰이는 접미사이다. 단어의 형태는 동일하지만 문맥에 따라 사동과 피동으로 구별할 수 있다. ③의 '등생을 울렸다.'에서 '울리다'는 '올다'의 사동형이지만, '천둥이 울리고'에서 '울리다'는 자동사로서, '어떤 울체가 소리를 낸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피동 접미사 '-리-'가 붙은 형태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오답피하기]

- ① '사탕을 물렸다.'에서 '물리다'는 '물다'의 사동, 즉 '물게 하다.'의 의미이고, '모기에게 물렸다.'에서 '물리다'는 당항의 의미를 지닌 피동의 어휘이다.
- ④ '연필을 잡혀'에서 '잡히다'는 '(연필을) 잡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사동의 어휘이고, '포위망에 잡혔다.'에서 '잡히다'는 '체포되다'의 의미로 사용된 피동의 어휘이다.

### 135. 해설

#### [품사의 이해와 사용]

<보기 1>에 나와 있듯이 ㉠은 '듯'으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며, 이때의 '듯'은 의존 명사 '듯이'의 준말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바꾼다고 해도 품사는 그대로 의존 명사이다.

#### [오답피하기]

- ① 용언에 붙어 있는 '듯'은 어미로 보면 된다.
- ② 어미 '듯'은 '듯이'가 본말이므로 바꾸어 써도 의미에 변화가 없다.
- ⑤ ㉠을 '듯'으로 바꾸면 수식 관계에 있는 뒷말 '날씨'와 연결되지 않으므로 바꾸어 쓸 수 없다.

### 136. 해설

#### 어법의 이해

#### [풀이]

㉠과 ㉡의 구별은 지시 대상의 실재 여부와는 관계없다. 둘 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뿐이다.

### 137. 해설

#### 맞춤법 규정의 이해와 적용

'시끄럽다, 촌스럽다'에 관형형 어미를 붙이면 '시끄러운, 촌스러운' 등과 같은 형태가 되므로 이 말들은 'ㄴ'불규칙 용언이다.<보기>의 답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ㄴ'불규칙 용언의 관형형을 줄여서 쓰는 것은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이다.

#### 오답피하기

- ① 'ㄴ'불규칙 용언의 관형 활용형을 줄여서 쓸 수 없다는 답변으로 보아 적절한 내용이다.
- ② 준말이 인정되는 것은 '군고구마, 군밤'처럼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 한정한다고 하였으므로 '군감자, 군조개'와 같은 표현은 쓸 수 없다.
- ③ '아/어'나 '은/은'과 같은 어미를 붙여 활용해 보면 '잡다, 뽑다' 등은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 ④ 관형형 어미 앞에서는 어간 말음 'ㄴ'이 'ㄷ'로 바뀌어 '자랑스러운, 부끄러운'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138. 해설

#### 어법의 이해와 적용

#### [풀이]

<보기>에 ㉡의 풀이에 해당하는 용례는 없다. ㉡의 풀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인생은 나그네길.' 정도를 들 수 있다. 원래 문장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인데 '이다'를 생략한 것이다.

#### [결림돌 치우기]

- ① 둘째 사례에 대한 풀이이다.
- ③ 넷째 사례에 대한 풀이이다.
- ④ 첫째 사례에 대한 풀이이다.
- ⑤ 셋째 사례에 대한 풀이이다.

### 139. 해설

#### 맞춤법의 이해 및 적용

'생긱이'는 부사 '생긱'에 '-이'가 붙어 있는 형태로, 제25항-2의 규정에 따른 표기에 속한다.

### 140. 해설

#### [피동문과 능동문의 의미 차이]

③의 경우에는 '나도 흥흥한 소문을 들었다.'와 같이 자연스럽게 능동문으로 바꿀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이다. ①, ②, ⑤의 경우 '감기가 철수를 걸었다.', '냉혹한 현실이 그를 부딪쳤다.',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올해는 지리산 벚꽃의 개화시기를 많이 당겼다.'와 같은 형태의 능동문으로 바꾸어 보면 어색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④를 능동문으로 바꾸면, '세 사람이 행운권 한 장을 뽑았다.'가 되는데, '세 사람이 함께 행운권 한 장을 뽑았다.'라는 의미 외에 '세 사람이 저마다 행운권 한 장씩을 뽑았다.'라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다.

### 141. 해설

어법의 이해와 적용 ④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문장을 수정하면, '동네 사람들 모두가 온 것은 아니다. 즉, 일부는 오지 않았다.'의 의미로 해석된다.

오답 피하기 <보기 1>은 부정문에서 부정이 미치는 범주에 따라 의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보기 2>에 적용한 ①과 ③은 의미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것이며, ②는 짧은 부정문을 긴 부정문으로 바꾸어도 여전히 의미의 중의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설명이다. ⑤는 <보기 1>을 적용하여 의미의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 142. 해설

#### 종결 어미와 상대 높임법

①의 종결 어미로는 '-네, -게, -세'가 있다. 이를 청유문 형태로 표현할 때 '자네, 나와 같이 그곳을 가 보세.' 정도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아주 높임의 종결 어미는 '-부니다, -부니까?'(의문형, 청유형) 등이 쓰인다.

③ 해라체의 종결 어미는 '-나, -느냐?'(의문형, 청유형), '-어라'(명령형) 등이 있다. 참고로 매체에서 독자를 향해 명령하는 형태에는 '-으라'를 사용한다.(썰, '축복이 있으라, 많이 읽으라' 등)

⑤ "이 책 재미있어?", "아주 재미있는걸."에서와 같이 종결 어미 '-아(어),

-지, -군, -느 낱'은 높이는 것도 낮추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높임의 표지이다.

### 143. 해설

[표준어의 이해와 적용]

①에서 '지레'와 '목'이 결합된 단어를 지렛목이라고 표기하듯이 '이마쌀'은 '이마'와 '쌀'이 결합된 합성된 '이맛쌀'이라고 해야 맞고, ⑤의 '날개짓'도 '날갯짓'으로 해야 바른 표기이다.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는 '제삿날, 훗날, 갯날' 등과 같이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하므로 ②의 '짹수날'은 '짹숫날'이 맞고, 같은 이유에서 ③의 '기찻길'도 맞는 표기이다.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하여 '수평, 수나사, 수농, 수사슴, 수소, 수은행나무'가 표준어이다. 그러나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기와, 수탉, 수탕나귀, 수틀찌귀, 수돼지, 수평아리' 등은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그리고 '숫양, 숫염소, 숫쥐'의 접두사는 '숫-'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②와 ③의 '수기와, 숫염소'는 바른 표기이며, ①의 '숫돼지'는 '수돼지'가 바른 표기이다. 고유어끼리 결합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데, ④에서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바둑이, 절름발이'처럼 그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므로, '곰박이'가 바른 표기이다. ⑤의 '이튼날'은 '이튿날'로 고쳐야 옳다.

### 144. 해설

| 국어 용법의 이해 |

'쏟다'는 '쏟는, 쏟아, 쏟으니' 등으로 어간이 변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활용되는 용언이다.

오답피하기 ① '붓는, 부어, 부으니' 등으로 불규칙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② '젓는, 저어, 저으니' 등으로 불규칙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③ '줍는, 주워, 주우니' 등으로 불규칙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④ '듣는, 들어, 들으니' 등으로 불규칙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 145. 해설

[어휘 결합의 제약에 대한 이해와 적용]

'마음'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마음을, 마음의, 마음이다' 등과 같이, '에' 이외의 조사들과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 반면, '불가분'은 '이, 을, 예' 등의 조사와 결합할 수 없으며, '미연', '찾김', '바람' 등의 명사도 '이, 을, 의' 등의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 146. 해설

표준어 규정의 이해와 적용

<풀이>

<보기>의 설명은 중세 국어에서 엄격히 지켜지던 모음조화의 원칙이 현대 국어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모음조화는 주로 합성어

가 만들어질 때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구별되어 어울리려는 경향을 말한다. 그런데 현대 국어에 와서 양성 모음끼리 어울려야 할 상황에서 양성 모음 대신에 음성 모음이 사용되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러한 경향을 표준어 규정에서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②의 경우, '차갑다'의 어간 '차갑-'의 끝 음절의 모음(ㅏ)이 양성 모음이지만 뒤에 결합되는 어미는 '-어서'로서, <표준어 규정 제8항>에서 말하는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예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차가워서'로 써야 맞는 말이다.

<오답피하기>

① '강충강충'이 표준어, '강충강충'은 비표준어이다.

③ 원래 '주초(柱礎)'에 '돌'이 결합된 말이지만, 음성 모음으로 굳어진 '주춧돌'을 표준어로 한다.

④ '보통이'는 비표준어이다.

⑤ 어간이 1음절이면서 양성 모음인 '굽다'와 '뚫다'의 경우에는 양성 모음인 어미가 결합한 '고와서', '도와서'를 표준어로 삼는다.

### 147. 해설

불규칙활용의 이해

'웃다'는 어간인 '웃-'에 어떤 어미가 붙더라도 어간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기에 규칙활용을 하는 용언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짓다'는 어간인 '짓-'에 붙는 어미의 종류에 따라 'ㅅ'이 남아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여 어간의 형태가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예) 짓고, 지으니

② '듣다'는 어간인 '듣-'에 붙는 어미의 종류에 따라 'ㅂ'이 '오/우'로 변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기도 하여 어간의 형태가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예) 듣고, 도와

③ '묻다'는 어간인 '묻-'에 붙는 어미의 종류에 따라 'ㄷ'이 'ㄹ'로 변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기도 하여 어간의 형태가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예) 묻고, 물어

⑤ '모르다'는 어간인 '모르-'에 붙는 어미의 종류에 따라 'ㄹ'이 'ㄹㄹ'로 변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기도 하여 어간의 형태가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예) 모르고, 몰라

### 148. 해설

피동문과 능동문의 의미 차이

③의 경우에는 '나도 흥흥한 소문을 들었다.'와 같이 자연스럽게 능동문으로 바꿀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이다. ①, ②, ⑤의 경우 '감기가 철수를 걸었다.', '냉혹한 현실이 그를 부딪었다.',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올해는 지리산 벚꽃의 개화 시기를 많이 당겼다.'와 같은 형태의 능동문으로 바꾸어 보면 어색하다. ④를 능동문으로 바꾸면, '세 사람이 행운권 한 장을 뽑았다.'가 되는데, '세 사람이 함께 행운권 한 장을 뽑았다.'라는 의미 외에 '세 사람이 저마다 행운권 한 장씩을 뽑았다.'라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다.